

떡볶이 수다

“네”거리, 思 거리

기획특집 2002 여성제 femi street

1st street - fenergy 충전! 강의실 밖 여성학

2nd street - 용감한 여성들, 늑대를 타고 달리는..

- 새움터 언니들과 함께하는 비즈공예
- 사회속에서 여성의 자리잡기

3rd street - 나는 모든 성폭력에 반대한다!

뿌리부터 싹둑! - “교수성폭력뿌리뽑기연대회의”

4th street - 여성공간을 말한다

AlterY 연고제 평가

5th street - 여성, 영화路

슈팅 라이크 베컴 / 인도식 팝콘



interview

이승남의 꽃과 빵 이·승·남
유쾌한 Girl 신나는 女子를 만나다

10

2002. October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 기분좋은 충돌! 제14대 총여학생회

cool-energy@hanmail.net / 전화 2123-3645(구내 3645)

contents



October 10, 2002 떡볶이 수다

기획특집 2002 여성제 femi street

I 어는글

- 골목을 돌아돌아...femi street "네" 거리, 똥 거리 도책

- by달리

II 일정 소개

- femi street 거닐어보기

III 각 프로그램별 소개, 심화된 해설

1. 1st street - fenergy 총재 강의실 밖 여성학 ● 8

① "내가 죽기 직전까지 하고 있을 두가지 일이 있다면 그건 책쓰기와 여행하기다"

- by 조선희

② 성매매 피해 여성의 현실 - 인권침해 문제를 중심으로

- by 김현선

③ 과학/의학에서의 여성인식

- by 하정옥

④ 내 몸에 좋은 요가

- by 서경숙

2. 2nd street - 용감한 여성들, 녹대를 타고 달리는.. ● 17

① 우리는 왜 성매매를 반대해야 하는가

- by 원미혜

② Asia Sex Slaves

- by 이승규호

3. 3rd street - 나는 모든 성폭력에 반대한다! ● 39

① 연성부연 - 가해자에게 보내는 편지 하고 싶은 이야기들

- by 연성부연

② 뿌리부터 싹둑! - "교수성폭력뿌리뽑기연대회의"

- by 달리

4. 4th street - 여성공간을 말한다. ● 40

① 여성공간을 말한다.

- by 여량

② 알타리 AlterY 연고제 평가

- by 알타리 AlterY

③ 자치단체 소개

5. 5th - 여성, 영화로 ● 53

① 슈팅 라이브 벅

-by 헤라

② 인도식 팝콘

- by 여량

6. interview 유쾌한 Girl 신나는 女子를 만나다 ● 58

이승남의 꽃과 땀 CEO

- 이승남



a letter from the editor

조금 더 일찍 찾아뵙게 되었네요.

이번 떡볶이 수다는 <제 5회 여성제 femi street-"네"거리, 똥거리>

특집호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많이 되어왔지만

어디에서도 그 궁금증은 속 시원히 풀어주지 못했었던

여성, 여성학, 페미니즘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이번 호 떡·수에서

<femi street-"네"거리, 똥거리>와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성매매와 성폭력의 문제, 그리고 객관의 영역이라는 과학/의학에서의 여성에 대한 인식,

더 나아가 여성들은 어떻게 사회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잡아나갈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현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성의 거리에 서서,

우리 앞의 현실을 직시하고 다양한 가능성들을 찾아봅시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호의 다양한 이야기거리들로 인해서, 7만원 여행기와

다다의 "내가 성폭력을 알아?" 낯선 곳에서 등의 고정폭지를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양해의 말씀 전하고요, 하지만 그만큼 더 풍부하고 다양한 주제로

10월 떡·수를 풍성하게 채웠으니,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준비하시고, 이제 femi street로 들어서볼까요?

'살다보면'이라는 노래로 잘 알려진 분이죠. 권진원 씨의 5집 앨범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가수의 오랜만의 앨범이라 참 반가웠는데요. 앨범 제목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진원 Street, 진원의 거리.

참 인상적이더군요. 오랜만에 나온 새 앨범에 자신의 이름을 단 거리의 이름을 붙이다니. 그 곳 - 진원의 거리에 들어서면 그리고 그 거리를 지나쳐간다면 진원의 현재와 앞으로의 모습을 어렵잖이나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만큼, 이제는 자신이 무엇을 해왔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과정에 와 있는 것인지를 팬들에게 보여주려는 의미가 아니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골목을 돌아돌아...femi street

street, 거리라는 곳이 그렇지요. 땀 뚫린 길 하나와 그 옆으로 늘어선 온갖 가게와 건물들, 그리고 그곳을 지나쳐가는 수많은 사람들. 전혀 아무런 상관 없이 모여 있는 것 같지만 잘 살펴보면 모두가 어우러져 그 곳의 이름에 어울리는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와보는 곳일지라도,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내가 어떤 공간에 와 있는지를 느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곳을 지나치면서, 내가 지금 있는 공간의 면면을 보면서, 이 거리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나름의 즐거운 기대도 해 보게 됩니다.

사실 세상 살기 참 쉽지 않죠. 워낙 경쟁도 치열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많다 보니 준비해야 할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 회사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시는 한 분이 그러시더군요. 4.0의 학점은 기본이고 900이상의 토익점수에, 몇 가지 외국어는 이제 필수라고요.

하지만 정신없이 달려가는 그 와중에서, 문득 그런 생각은 들지 않던가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뭘 하고 있는 걸까.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정신없이 나름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잠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봅니다. 무엇이 현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렵듯이 뭔가 열심히 준비하면 될 거라는 생각은 들지요. 현실이 뭔지 잡히진 않지만, 어렵듯이라도 느껴지는 건 그나마 여학우들에게는 몇 장 떨어지지도 않는 입사 원서를 붙잡아야 하는 현실. 그리고 성희롱과 성차별 등 입사 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온갖 상황들에 대한 걱정들. 나를, 여성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어디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림은 잡히지 않습니다.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우리 앞의 선택지를 잘 알 수 없는 건 아마도 지금 현재 나의 위치, 내가 처한 그곳이 어디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고민과 질문에서부터 제5회 여성제 femi street-"네"거리, 똘거리 출발합니다.

"네" 거리, 똘 거리 도착!

femi street,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거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를 울게도 또 웃게도 하는 곳이니깐요. 하지만 그 예측불허의 공간에는, 또 그만큼 내가 알지 못하는 가능성들도 숨어있는 것이겠죠. 나/너의 현실, 여성의 현실의 다양한 모습들을 담고 있는 거리에 서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나를 둘러싼 현실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그런 후에는 우리 앞에, 여성들에게 주어진 다양한 선택지들이 더 잘 보이겠죠. 나/너의 앞에 놓인 가능성을 함께 찾아봅시다. femi street, 개통합니다!



기획특집
2002 여성제

femi street

“네” 거리, 思 거리



구분	시간	내용	장소
1st street	9/30(월) 12시	여성제 개막식	민주 광장
2nd street	9/30(월) 2시	새움터 '언니'들과 함께 만드는 비즈공예 - 새움터 '언니'들 -	학생회관 4층 제2학생회의실
	9/30(월) 7시	사회 속 여성의 자리잡기 - 조선희 (소설가, 전 Cine21 편집장) -	학생회관 3층 푸른샘
	10/1(화) 7시	성매매 문제를 통해서 본 여성의 삶 - 수수 (새움터) -	외술관 110
		의학/과학에서의 여성 - 하정옥 (서울대 강사, 여성노동건강학회) -	외술관 106
	10/2(수) 4시	여성의 몸에 좋은 요가 - 서경숙 (국제종합요가협회 주임강사) -	논지당
3rd street	10/2(수) 7시	연애/동거 문화속에서의 커뮤니케이션 - 나윤경 (연세대 문화학협동과정 교수) -	외술관 110
		여성, 영화로 6시 - 슈팅라이크 베컴 8시 - 인도식 팝콘	위당관 B09
4th street	여성제 기간 내내	여성, 현실 있는 그대路 - 연성뿌연 교성뿌연 AlterY 여성자치단체들 -	민주 광장

강좌소개

새움터 '언니' 들과 함께하는 비즈공예

성매매여성지원센터 새움터

매년 방학때면 총여학생회에서는 팽택 기지촌으로 현장활동을 가곤합니다.
다른 현장 활동과는 달리 기차에서는 어떤일을 직접 하고 돕기보다
기지촌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있었던 '언니' 들과 일상적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의의를 갖습니다. 너무나 멀리있는것만 같았던 성매매 여성들. 함께 이야기 하고
시간을 보내며 비즈공예를 해볼까요?^^
(예상인원 파악을 위해 신청받습니다!여성제기확단커뮤니티
<http://www.freechal.com/womanfestival/>에서 신청해주세요^^)

사회속에서 여성의 자리잡기

강연자_ 조선희 씨(소설가, 전cine21편집장)

많은 여대생들이 자신의 커리어를 고민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사회가 원하는 학점과 영어점수를 갖추어도, 갈길은 여전히 험난합니다.
남성들이 공적/사적 영역에서 구축해 나가는 네트워크는 여성들에게 해당되지 않으며
그만큼 현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도 부재합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편집장으로 일하기까지 그리고 작가라는 또 다른 선택을 내리게 될 때까지
여성으로서 겪었을, 결코 쉽지 않은 그 경험을 이제 비슷한 길을 가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전해주려 합니다.

강연자_ 수수(새움터 간사)

성매매는 현대 사회에서 조직적이고 거대한 산업으로
존재하고 그 속에는 수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성매매문제를 통해 본 여성의 삶,
성매매 여성들은 과연 우리와 다른 존재일까요?
기지촌 언니들의 삶을 통해 여성의 삶을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성매매 문제를 통해서 본 여성의 삶

과학/의학에서의 여성

강연자_ 하정옥(의료사회학 연구, 서울대 강사, 여성노동건강회원)

과학과 의학 분야로 많은 여성들이 진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야에서의 주체가 누구인지와는 상관없이
그 담론들 내에서 여성들은 많은 부분 배제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과학과 의학은 객관적인 학문으로서
확실하게 검증된다는 의식이 팽배하고,
그 안에서 거론되는 여성들의 몸이나 경험과 관련된 담론들은
정작 주체인 여성은 배제된 채 이어지곤 합니다.
여성에 대한 편파적 인식과 왜곡이 현대 과학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여성의 몸에 좋은 요가

강연자_ 서경숙(국제종합요가협회 주임강사)
여성의 건강에 좋은 요가를 직접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가급적 편안한 복장(바지, 운동화)을 착용해주세요^^

연애/동거 문화속에서의 Communication

강연자_ 나윤경(연세대학교 문화학 협동과정 교수)

연애와 동거가 보편화되어가는 현실에서 여전히 막혀있는
여남간 의사소통의 벽을 어떻게 무너뜨릴수 있을까.
남성의 시각, 그리고 여성의 시각에서 바라본 벽,
서로 다른 입장과 편견들을 살펴볼까요~

<http://www.freechal.com/womanfestival>
cool-energy@hanmail.net



1st

street -

fenergy 충전!

강의실 밖 여성학

몇

해전 전국대학생기자연합회 워크숍에서 강의한 적이 있다. 기사쓰기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 나는 30분쯤 시간을 내어 학생들에게 졸업후의 진로와 결혼관 등에 대해 질문을 던져 보았다. “자, 이 질문은 여학생들만 답하세요. 졸업후 그냥 결혼하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결혼 안하고 사회활동만 하려는 사람?” 역시 아무도 손 들지 않았다.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겠다는 사람?” 절반의 학생이 손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뭐지?” 그랬더니 한 학생이 “졸업하고 취직했다가 결혼하면 그만두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물론 아무데도 손들지 않은 학생 전부가 그렇다고는 보지 않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였을 것이다. 나는 많이 놀랐다. 아니, 요즘 여자 대학생들 사고방식이 이 정도란 말인가. 한 여학생은 “직장생활 하면서 결혼생활도 잘 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누구든,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어서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세상에 나오고, 직장생활 잘 할 것 같아서 취직하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이를 낳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직장생활 하고 싶어서 취직했고 또 결혼하고 싶어서 했고 또 결혼해서 살다보니까 아이가 생겨났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라서 포기하지 않은 것이고 때로는 도전해보기도 한 것이다.

내가 기자가 되기로 한 건 사회를 향해 뭔가 발언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대학 시절 나는 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계속할까, 아니면 사회운동을 할까, 그 사이에서 고민했다. 그 절충안으로 택한 것이 기자였다.

나는 1982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당시 여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려 했을 때, 선택은 세가지 가운데 하나였다. 선생님이 되거나, 공무원이 되거나, 기자가 되거나. 은행 같은 몇몇 업종을 빼고는 대부분의 기업체들이 여자를 뽑지 않았던 때였다. 신문사라고 해도, 절반은 ‘병역필한 남자에 한함’이라고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었다. 가령 82년만 해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와 KBS는 여자에게는 응시자격을 주지도 않았으니, 내 경우는 원서를 내 볼 수 있는 곳도 몇 군데 되지 않았다. 그나마 여자를 뽑는다는 데서도 수습정원이 10명이면 여성 티오 1명을 절대 넘지 않았고, 또 그나마 일부 신문에서는 ‘결혼하면 나가다오’라는 각서에 서명을 강요했었다. 그런데 비해, 지금은 ‘병역필한 남자에 한함’이라고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신문사도 없어졌고, 올해 한겨레신문사의 경우는 취재편집 부문에 수습기자 6명을 뽑았는데 그 가운데 3명이 여자였다.

대졸 여성들에게 취업의 문은 훨씬 넓어졌다. 아주 더디긴 하지만,

“내가
죽기 직전까지
하고 있을
두 가지 일이
있다면
그건
책 쓰기와
여행하기다.”

조선희
(소설가, 전<씨네21>편집장)



한국사회도 여자들이 활동하기에 점점 나아지는 것만은 틀림 없다. 거꾸로 여자들이 사회에 많이 나와야 한국사회에서 여자들이 살기 점점 나아진다. 한국사회에 성차별의 벽이 존재한다면 여자들이 많이 부딪쳐야 벽이 조금씩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인권에 관련한 한국이 얼마나 후진국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 나는 곧잘 UNDP(유엔개발기구) 보고서를 인용하곤 한다. 99년도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전체 174개국 가운데 인간개발지수 30위의 선진국이다. 그런데 여성의식 비율을 보면 한국은 3.7%로, 156개국 가운데 132위다. 95년 보고서에서도, 행정관리직의 여성비율은 116개국 가운데 112위였는데, 재미있는 건 여성취학률은 130개국 가운데 27위였다는 것이다. 그해의 GNP는 23위였던 걸로 기억된다. 한마디로 한국은 잘 살고 여자들 공부는 열심히 시키는데 여자들을 사회에 나오지는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이다. 또는 사회에 나온 다음에도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부추긴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이 극동아시아에서도 유난히 여성의 사회진출상황이 부진한 여성인권후진국으로 남아 있게 된 것은, 그 절반 이상의 책임은 분명 여자들 자신에게 있다.

기자에서 소설가로 전업하고 싶었던 건 아마 이런 이유들 때문이었던 것 같다. 첫째, 기자는 늘 시간에 쫓기면서 일을 하고 글이 파편처럼 흩어져서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린다. 그런데 나는 아마 눈덩이를 굴리듯 내 생각을 모으고 모아서 어떤 덩어리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고 또 오래도록 생명력을 부지하는 그런 글을 쓰고 싶었던 것 같다. 두 번째, 기자는 늘 남의 작품에 대해 논평만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나도 내 이야기를 직접 하고 싶었다. 직접 창작을 해보고 싶었다. 내 친구 하나는 최근 나에게 "너의 커리어에서 어떤 특징을 발견했다."면서 "처음엔 시간 단위로 마감하는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엔 하루하루 마감하다가 그 다음엔 일주일에 한번씩 마감하다가 그 다음엔 일년에 한번 마감하는 것이니 앞으로는 대하소설만 쓰면 되겠다."고 농담을 했다.

마흔 세 살에 소설가로 나서니 나는 자꾸 박완서 선생을 바라보게 된다. 그는 나이 마흔에 소설가가 되었고 2년전 일흔 나이에 <오래된 농담>이라는 장편소설을 썼다.

헬렌 토머스라는 여자가 있다. 미국 UPI통신의 백악관 출입기자인데 지금 82세다.

재작년 <백악관 앞줄에서>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말이 와닿았다.

"내가 죽기 직전까지 하고 있을 두 가지 일이 있다면 그건 책 쓰기와 여행하기다." ♪

성매매 여성의 현실

한국사회에서 성매매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는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성매매문제에 대한 보다 활발한 논의와 대안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성매매피해여성의 인권 문제에 접근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매매를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여성에 대한 억압과 폭력으로 파악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보다, 현실에서 착취와 억압을 당하고 있는 성매매피해여성을 구조하고 이러한 학대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많은 성매매여성들이 심각한 인권침해의 상황에 놓여있지만, 한국사회의 일반적 인식과 법적, 제도적 태도는 이 여성들의 인권 상황의 개선에 그다지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매매여성들이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매춘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범죄자 규정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남성고객 뿐만 아니라 성매매여성까지 범죄자로 규정함으로써 성매매여성에 대한 학대행위를 오히려 용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성매매여성들은 포주나 남성고객으로부터 인권침해나 범죄피해를 당해도 신고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만약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성 스스로 자신이 성매매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즉 성매매여성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은 성매매여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가로막음으로써, 이 여성들에 대한 범죄 행위를 오히려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여성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성착취의 피해자인 여성들에게 오히려 성매매의 책임을 돌리는 행위이며, 이는 성매매의 본질적인 측면을 왜곡시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성매매 관련 법률의 실효성

현행 법률의 실효성 문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불법 채무의 문제이다.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업소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성매매여성들이 포주에게 지고 있는 수 백 만원에서 수 천 만원

성매매 피해여성의 현실

- 인권침해 문제를 중심으로

김현선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새움터 대표)

까지의 빛이다. 이 빛은 주로 직업소개소나 성매매업소에서 또 다른 성매매업소로 여성들이 매매되는 과정에서 소개비의 명목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여성들이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동안, 낙태 비용, 의료비, 티켓비(질병 등으로 일을 할 수 없는 날 내야되는 벌금), 방세 등의 명목으로 더욱 불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채권·채무 관계는 모두 성매매와 관련된 불법적 채무로서, 상환의 책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에서는 이 빚을 모두 갚지 않는 한 성매매피해여성들은 업소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법률적으로는 그 이유는, 성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관계라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실제 이러한 법률을 집행하는 관련 공무원이나 경찰의 인식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 법률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성매매로 인한 사회적 낙인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최근 성매매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통해 많은 미성년 성매매여성들이 다시 가족에게 돌아가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들에게 모든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발생되었다. 단 한 번이라도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이 결코 지울 수 없는 낙인이 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많은 여성들이 가정과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가출을 하고 성매매업소로 돌아갔으며, 심지어 부모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면서 자살을 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범죄피해에 노출된 성매매 여성

많은 성매매피해여성들이 포주, 폭력배, 그리고 남성고객의 착취와 폭력, 성폭행, 살인 등과 같은 범죄피해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피해를 당해도 살인 사건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고조차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여성이 신고할 경우 자신이 성매매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 처벌을 받게 되고,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강하다. 대부분의 성매매집결지에 경찰이나 정부의 행정력이 거의 미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성매매피해여성들은 경찰과 업주의 유착 관계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공권력에 의한 사건 해결을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미군범죄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기지촌에서는 매년 살해사건 비롯한 많은 미군범죄가 발생하지만 대

부분은 신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신고를 한다고 해도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과 소극적인 경찰의 태도 등으로 인해 사건은 해결되지 못하고 미궁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민으로서의 권리의 문제

한국사회에서 성매매피해여성들은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 대부분 의료보험, 생활보호, 공공근로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이나 복지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회 복지 제도나 탈성매매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조차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다.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의 문제

현재 전국에는 기지촌의 성매매업소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유입된 많은 여성들이 성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여성들은 1996년 이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볼리비아, 페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연변 등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되었다. 관광 자원의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아시아 각국 정부의 지원과 묵인을 통해 성산업이 점차 규모를 확장하고 있으며, 1990년대 후반 아시아를 강타한 경제 위기와 점차 심화되는 국가간의 빈부 격차가 국가간의 여성 매매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극심한 빈곤과 실업으로 해외 이주 노동을 원하는 동남 아시아 각국의 여성들은 한국, 일본 등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로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다. 국가 정책적인 해외 이주 노동의 장려와 값싼 노동력에 대한 국제적 필요성에 의해 촉진되고 있는 노동력의 이주는, 여성 인신매매 알선자들에게 의해 악용되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 여성들은 한국의 성매매업소로 유입된 후 성매매 강요, 화대 갈취, 폭행, 감금 등의 학대행위로 인해 고통받고 있지만, 제3세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도움을 청할 곳도 없이 더욱 소외당하고 있다.



과학/의학 에서의 여성인식

하정옥
(의료사회학 연구,
서울대 강사,
여성노동건강회원)

근대과학과 의학은 이론이나 실천 양자 모두에서 일견 성과 무관한 것처럼 보이고 스스로도 성 중립적임을 주장해왔다. 즉 과학과 의학은 자연과 인간을 연구하여 그 비밀을 밝히는 작업이지 남성적/여성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며, 실천의 주체 또한 남성이든 여성이든 능력만 있다면 상관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과학과 의학 커뮤니티 내부에 들어가 본 여성이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듯이 과학과 의학의 실천 양상은 절대로 성 중립적이거나 성과 무관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 실험실은 여자는 받지 않는다"라든지 "우리 (전공)과는 여자는 올 수 없다"라고 성별 원리를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수정란의 형성과정이 분명 정자/난자의 상호 협업이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자가 난자를 "침투하여 수정시킨다"는 묘사가 지배적인 것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암묵적으로 성별 원리를 드러낸다.



근대과학은 이미 그 시작단계부터 그것을 형성한 주요 원리로서 젠더라는 변수를 갖고 있다. 과학은 여성인 자연과 합법적인 결혼을 하는 남성 이성을 자처했고(프랜시스 베이컨), 호전적인 남성성이 전형적인 남성으로 인정되던 시절에 다소 정적인 성격이었던 남성 과학자는 "겸손한" 과학자를 새로운 남성성으로 구성해 내고 그것에 인식론적 권위를 부여하였다(로버트 보일). 근대과학과 의학이 젠더 원리로 형성되었다는 이러한 인식은 1970년대부터 이루어진 페미니스트 과학 비평에 힘입은 바 크다. 이 비평은 과학과 의학 커뮤니티가 여성에게 폐쇄적인 현실을 비롯하여 일상 과학과 의학이 성별화되어 있다는 인식론적 측면까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군대와 교회만큼이나 여성에게 배타적이었던 과학 커뮤니티에 여성들이 진출하면서 바로 이러한 비평이 출발했다는 사실이다. 즉, 남성만으로 이루어진 커뮤니티가 전혀 '문제'로서 인식되지 않다가 그 안에 여성들이 들어가면서 그것을 '문제'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원인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강좌에서는 근대과학과 의학의 성별성을 이론과 실천, 주체와 문제인식의 측면에서 검토할 것이다. 과학과 의학의 생산자로서 혹은 소비자로서 평소에 경험했던 '사소한' 일상이 절대로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원리의 반영임을, 강좌 참가자의 다양한 경험 속에서 확인해 보고자 한다.

요가는 수행의 철학이다.

육체적 훈련이라 생각되는 것도 그 목적이 정신적인 향상에 협력될 수 있는 몸을 만드는데 있다. 따라서 같은 체조라 할지라도 소위 보통 의미의 체조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줄로 믿는다.

요가에서는 여러가지 자세, 동작, 호흡을 의식적으로 훈련하여 생명 본래의 조화와 유지 능력을 고도화 하고 동시에 몸과 마음의 안정적, 적응력, 조절력을 강화시키게 된다.

요가 동작을 통해서 자세나 동작이 올바른때는 신경의 작용과 내분비 작용도 정상이므로 몸뿐만 아니라 뇌도 안정되고 마음도 안정이

내 몸에 좋은 요가



되므로 기분이 좋고 호흡이 깊고 조용하며 생리적인 작용도 안정이 된다.

몸과 마음이 이러한 상태가 되면 안정력, 저항력, 판단력이 높아져서 자연히 정력과 투지가 솟아난다. 그러므로 어떠한 활동에도 바른 자세, 고른 호흡, 정신통일의 삼일로 행하면 생리적인 능력이 높아지고 강해질뿐 아니라 마음도 안정이 되므로 자연히 모든일에 능률이 오르게 된다.

요가의 여러가지 동선을 수련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들어 보면

요가의 여러가지 동선의 수련자세

① 요가의 여러 가지 자세나 동작은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행합일(知行合一) 즉 행동하는 목적과 효과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그 동작에 마음을 집중시켜 실행해나가야 한다.

② 요가의 여러 가지 동작은 긴장력과 조화를 취할 수 있을 정도의 억제 호흡력이 길러지면 몸과 마음의 균형 유지 능력과 조화능력이 높아져 자연히 정신의 안정력과 적응력이 강화된다. 억제력을 높이는 방법은 호흡을 할 때 "탄력을 이용하지 말 것, 마디를 만들지 말 것, 소리를 내지 말 것, 하반신의 힘을 빼지 말 것" 등이다.

③ 모든 동작은 반드시 단전(아랫배)으로 행한다. 이 단전에 전신의 힘을 집중하고 동작할 때 비로소 자연체를 유지할 수 있다. 이 단전력으로 동작하는 요령은,

항문(肛門)의 수축력이 강해지고 엄지와 허리 및 배에 힘을 많이 준다. 호흡을 가장 편하게 할 수 있고 목과 가슴을 편 상태와 좋은 기분이 될 수 있게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다.

④ 동작을 시작하기 전에는 의식적으로 그 목적에 대하여 정신을 집중하고 맑은 기분이 되고 동시에 힘을 단전에 넣는 상태로 그 동작이 끝날 때까지 계속한다.

정신 통일법 중에서 특히 효과가 있는 것은 자신이 이상적인 자세나 동작과 호흡으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강하게 머리 속으로 상상해 보는 일이다.

이 방법에 의해서 관념의 자기 실현력이 높아지고 의식과 무의식의 통일도 쉽게 된다.

요가의 동선은 진단법임과 동시에 회복법이 된다. 어떤 자세나 체조가 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몸의 어딘가에 이상이 있다는 뜻이다.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알맞는 것을 자신이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신이 필요하고 적합한 자세나 동작은 각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

서경숙

(국제 종합 요가 협회 주임 강사, 한국 시력 요가 운동협회 주임강사, 현대 백화점 문화센터 강사, 중앙일보 문화센터 강사, 올림픽 스포츠센터 주임강사)



2nd

street -

용감한 여성들,
늑대를 타고 달리는...



우리는 왜 성매매를 반대해야 하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

성매매는 새로운 이슈도 새삼스런 역사도 아니다. 없는 듯이 은폐되다가 한 번씩 선정적으로 까발려지기도 하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해 왔고 진부하리 만큼 늘 '문제'가 되고 있다. 은폐를 바라는 사람들은 말한다. "매춘(賣春)은 남성의 충동적인 성욕 때문에 존재하는 사회의 필요악"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인데 이제 와서 어찌겠냐"고 말이다. 그렇다면 한 번쯤 '왜 그토록 성적 능력이 탁월한 남성들이 매춘부라는 직업을 담당하지 않았는가' 반문도 해 볼 만하다. 왜 대부분의 매춘부들은 여성이었으며 왜 그러한 성적 행위가 필요한가를.

성의 거래를 위해 다양한 만남을 주선하는 신종 상품들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욕은 한계점을 잃은 듯 새로운 자극과 해소의 방식을 발기시키는 성산업의 메커니즘 속에서 고무되고 있다. 다방에서도, 전화방에서도, 매체에서도 성을 끼워 판다. 한층 더 열악한 국가의 여성들은 브로커에 의해 바다 건너 더 나은 국가로 거래된다. 이제 성매매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나 단순한 생물학적 욕구의 문제를 떠나 거대한 성산업의 메커니즘 속에 존재하고 있다.

다양한 양상의 성매매 현상을 접하다 보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우리는 왜 성매매를 문제시해야 하는가? 성매매의 무엇이 여성에게 해로운 것인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아는 것, 그것은 성매매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의 원인과 대안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양하게 얽힌 성매매 현상의 실태를 풀고 새로운 역사를 짜는 데 '관점'의 정립이야말로 그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 앞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성매매가 '왜 여성에게 억압적인가'라는 질문을 여성 내부의 문제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실 성매매를 문제로 다루어

온 연구물이나 사회적 시각은 매춘부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이러한 시각에서 도출된 전통적인 물음들은 왜 여성들이 다른 직업이 아닌 성매매를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사회학적 상상력이 빈약한 성과학자나 범죄심리학자는 그 답을 매춘부들이 병리학적 요소나 일탈적 속성에서 찾았으며,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려는 사람들은 경제적·심리적 현실을 잘 드러내 준다고 할지라도 성매매의 전체 구조를 알기에는 '매춘 여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조각 그림에 불과하며 나아가 근본적인 문제의 초점을 흐리게 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성매매야말로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존속되고 유지되기 때문이다.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용어와 규정들 >>>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prostitution)는 일반적으로 오입(誤入), 윤락(淪落), 매춘(賣春), 매음(賣淫), 매매춘(賣買春), 매매음(賣買音) 등의 용어로 불린다. 이러한 용어와 규정에는 성매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에 두는가, 누구의 눈으로 다양한 성매매의 현실을 보는가 등의 관점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성매매 문제의 원인과 현실, 그리고 대안을 모색할 때 용어 사용은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우리가 기존의 용어들을 검토하고 새로운 관점을 담을 수 있는 용어를 선별하여 사용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관점을 드러내게 되며 그 자체로 하나의 실천력을 갖게 된다. 먼저 이제까지 주로 사용되어 온 용어들의 의미를 살펴보자.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윤락이니, 매춘이니, 매음 등은 '성을 파는 행위'만을 규정하는 용어들이다. 물론 이러한 용어들에서 '성을 사는 행위'는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성을 파는 행위에 문제의 초점을 맞추고 도덕적인 비난을 돌린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법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윤락'이란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린다는 의미를 갖는데, 이런 무시무시한 낙인은 성을 파는 사람에게만 찍힌다. 우리 사회에서 법이 정하는 윤락 행위자, 즉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리는 자는 성을 파는 사람이며, 손님인 윤락 행위자가 아닌 그저 '상대방'일 뿐이다.

이렇듯 윤락, 매춘, 매음 등의 용어는 성매매의 문제를 '파는 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성을 파는 행위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함축하고 있는데, 실제



성매매는 성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성을 사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슈레이쉬(L. Shrages, 1989, 349쪽)는 성매매를 "남성이 여성의 성적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과 관련된 행위"로 정의하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성매매 문제의 근원을 성을 사는 남성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페미니스트나 매춘 여성을 위해 일하는 현장 활동가들은 성매매가 '팔고 사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매매춘(賣買春)'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한다.

이때 성이 매매되는 현상에 굳이 '봄(春)'이란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물론 '春'자는 춘화(春畵), 회춘(回春) 등 일반적으로 성을 가리킬 때 널리 사용되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의 문제는 그것이 일본식 한자어라는 사실을 문제 삼지 않더라도 성을 고정 불변의 자연적인 현상으로 간주하는 시각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왜 성을 봄에 비유하게 되었을까? 춘정(春情), 즉 성욕

이란 봄에 새 생명이 돌아나듯 지극히 순환적이고도 자연적인 현상임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결국 성욕을 필연적인 것, 고정된 것으로 포장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고 파는 행위의 대상인 '성'을 새 생명의 싹을 틔우는 봄에 빗대어 '춘(春)'으로 표기하는 것은 성매매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감추게 될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러한 용어 사용의 정치적 의미에 덧붙여 성이 '매매' 또는 '거래'되고 있다는 측면을 부각시키는 일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매매는 범문화적이고 초역사적인 내용을 갖기보다는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의 조건에서 생성되고 변화되어 왔으며 변화될 수 있는 산물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가 일어나는 특수한 맥락은 성이 상업화되어 있으며 자본주의 성산업의 메커니즘 속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매춘, 매음 등의 용어는 여전히 행위자 중심의 개념이므로 이러한 메커니즘을 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매매춘이라는 용어는 기존의 언어 습관 때문에 '성을 사고 파는' 의미보다는 성을 파는 의미, 즉 매매춘(賣買春)의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다.

'성매매'라는 용어는 아동 매매, 인신매매 등과 같이 '거래'되는 측면을 강조하여 담을 수 있는 용어이다. 만약 우리가 '성매매자'라고 한다면 누구를 떠올릴지 생각해 보라. 여기에는 성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그리고 이

들을 연결하는 중간 매개자, 성산업 등 성의 거래를 이루게 하는 총괄적인 맥락이 드러날 것이다.

성매매의 특징과 문제 1 : 몸에 대한 자기 통제권의 상실 >>>

남성 손님과 매춘 여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성매매 행위의 전반적인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지라도 성매매는 남성 손님이 여성의 몸을 직접적으로 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성매매는 화대 지불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매춘 여성은 자신에게 화대를 지불하는 남성 손님과 권력 관계에 놓이게 된다. 남성 손님은 여성의 선택에서부터 체위, 콘돔 사용 여부 등 성매매 행위 전반에서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매춘 여성은 성행위의 조건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게 된다.

흔히 매춘 여성에게 '매춘(賣春)'은 단지 신체의 일부인 성기를 손님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은 (성매매가 정당화될 수 있는 '노동'으로 이해되기보다는) 매춘 여성이 자신과 상품화된 성을 분리시킴으로써 최소한의 자아를 지키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그들은 성매매에서 남성 손님을 '손님'으로, 성행위를 돈을 받는 '일'로 취급하려 하고, 손님과의 관계에서 제한과 금기(예를 들어 키스 거부, 굴욕적인 체위 거부 등)를 만든다. 그러나 성행위를 경제 행위로 취급하려는 매춘 여성은 화대를 받지 못한 '강간' 때문에 이러한 금기를 지킬 기회를 박탈당한다.

이들이 '일'로 인식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한·금기의 장치가 파기된다는 것은 육체에 대한 손상, 즉 자아에 대한 훼손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매춘 여성 스스로 만드는 이러한 제한이나 금기는 남성이 주도권을 갖는 성매매 공간에서 쉽게 무너지는데, 흔히 남성은 많은 화대로 또는 위압적인 폭력으로 금기나 제한을 깰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매춘 여성들은 성폭력을 당한 후에도 폭력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는 신체에 대한 학대에 보상이 따르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성매매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신체적 손상조차 그것이 대가가 '지불된 것'이면 '성매매'의 성적 행위의 연속선상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의 신체에 대한 학대나 그 사용은 특별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데, 성매매의 문제는 매혈이나 신체의 일부를 매매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를 임의로 일정 기간 사용(폭행을 하거나 사용자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 등)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것도 '자아'와 '신체'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매춘 여성들은 성폭력을 강제적인 성행위 후 '돈을 못 받는 경우'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성매매의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한 가지 예인데, 성매매와 강간은 '행동'이 아닌 화대 지불의 유무로 구별될 뿐, 남성이 사는 성은 비인간화된 육체인 여성과 관계한다는 점에서 강간의 성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한편 성매매 행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사용될 수 있는 신체의 부분이 '성기'라는 점에서 훨씬 복잡한 양상을 갖는다. 만약 성매매가 성기가 아닌 다른 신체 부분에 대한 사용권을 매매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매춘 여성 개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현재와 같은 무게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는 성기 접촉을 비롯한 성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는 우리 사회에서 성이 놓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먼저 성매매에서 남성 손님이 필요로 하는 성행위는 생물학적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단순한 '성기 접촉'에 있지 않고 여성의 '성적 서비스'의 연속선상에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은 매춘 여성의 연령과 수입이 반비례한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는데, 성매매가 단순히 성기 사용만이 요구되는 행위라면 매춘 여성의 나이는 별 상관없이 높기 때문이다. 성산업에서 업주나 남성 손님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여성의 '몸'이고 이를 사용하는 성적 서비스이다. 그렇다면 남성 손님이 여성의 몸을 통해 성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이 왜 가학적 심리를 포함하게 되는지를 살펴보자.

매춘 여성의 몸은 성적 대상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놀이의 대상이나 사물로 취급되고 있으며 여기서도 모든 가학적 행위는 '화대 지불'로 무마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술자리를 중시하는 직업 문화, 군대 문화가 일반화된 남성 문화로 자리잡혀 있는데 여기서 성매매는 남성이 남성성을 확인하고 공유하기 위한 장이기 때문에, 성매매는 단순히 성욕을 해결하기 위한 '성교'가 아니라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서 '여성'의 성적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매춘 여성은 남성의 유흥과 친목을 돌우기 위한 오락물로 전락하고 남성은 자신의 권력(위압, 돈 등)을 이용하여 여성에 대한 지배를 즐긴다. 남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열등한 존재로서의 여성성이며 여성의 몸, 몸짓이다. 따라서 성매매에서 남성 손님이 매춘 여성에게 요구하는 비하적 행위들은 의도적이며 필연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성매매는 이러한 남성의 가학적 심리가 내재된 욕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 존재하고 매춘 여성은 화대 지불을 대가로 자아를 자신의 몸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자신의 몸에



대한 사용·통제권을 일정 시간 남성 손님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남성 손님이 성매매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여성에 대한 지배와 여성 비하에 있는 한, 매춘 여성에게 요구되거나 가해지는 남성 손님의 폭력은 소멸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남성이 화대를 지불하는 권력 관계에서 매춘 여성이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란 아주 어려운 일이다.

성매매의 특징과 문제 2 : 성매매의 비가시성과 사회적 관계의 단절 >>>

남성들이 성매매를 이용하려는 욕구에는 '비밀 보장'과 '새로운 여성에 대한 호기심'이 전제되어 있다. 익명적 성을 원하는 남성의 욕구와 전제는 남성들이 성매매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성매매의 성격과 매춘 여성의 삶의 유형을 구성한다. 남성이 돈을 지불하고 성을 사는 이유는 익명의 상태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인데 바로 그 익명성 때문에 성매매는 음성적 상태로 온존·유지된다. 따라서 성매매가 법적으로 양성화된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자체의 음성적 성격으로 인해 법적 규제가 미칠 수 있는 영역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남성의 새로운 여성에 대한 욕구는 구매력을 자극하는 원동력인데 이러한 현상은 매춘 여성의 잦은 이동을 유발한다. 특히 제한된 지역에서 일정한 남성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유흥업소의 경우 업주는 남성의 익명성과 새로움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성을 끊임없이 교체해야 하는 것이다.

매춘 여성은 현재 일차적으로 그들이 유지해 왔던 사회적 관계나 정체성으로부터 분리됨으로써 주변화된다. 이러한 분리는 성매매의 익명성과 매춘 여성의 잦은 이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성산업의 업주가 남성의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매춘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나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익명의 공간에서 남성이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만큼 그 안에 있는 여성은 모든 사회적 보호로부터 배제된다. 또한 성매매의 경험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게 한다. 그들이 유지해 온 정체성에서의 분리는 성매매 세계의 생존 전략이 되기도 하는데, 매춘 여성 개인도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낙인을 의식하고 자신이 익명으로 성산업의 공간에 존재하기를 원한다. 매춘 여성은 성매매를 하는 동안에는 거주지나 업소 등 자신의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흔히 의료 보험이나 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

를 기피하고, 익명적 공간인 성매매의 세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한다.

그들은 업주나 알선자들이 만들어 주는 가짜 신분증이나 보건증을 사용하고 가명을 사용하며 요구에 따라 유흥을 즐기는 존재로 가면을 쓰면서 자신을 성의 상품화와 분리시킨다. 이러한 분리의 과정으로 인해 성매매 공간에는 성적 대상물로서 가장된 여성의 정체성만이 존재할 뿐이다. 특히 여성이 가족 관계에서 고립되어 있는 조건은 익명적 특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성산업의 착취자들에게 주요한 미끼가 된다. 매춘 여성의 대부분은 자신들이 받는 부당한 억압이나 폭력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울타리 없는 가족 출신이거나, 폭력적인 환경 속에 무기력하게 노출되어 온 여성들이다. 아버지나 남편의 폭력, 근친 강간, 성폭력의 경험 등 여성을 가정 밖으로 내모는 상황들은 여성이 성매매 공간을 익명적 '도피처'로 이용하게 되는 동기가 된다. 매춘 여성들의 많은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가출과 순결 상실은 여성이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중요한 동기가 되고 있다.

한편 유입 이전의 경험들은 알선자들과 쉽게 친밀감을 가지는 미끼가 되고 매춘 여성에 대한 통제, 착취를 가중시키는 중요한 전제가 되고 있다. 업주는 남성 손님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자신의 통제를 쉽게 하기 위해 매춘 여성들의 보호막이 될 수 있는 친밀한 관계, 사회적 관계로부터 그들을 '고립화, 원자화' 하는 전략을 펼친다. 사회적 관계나 친밀한 관계로부터 차단되고 고립된 매춘 여성은 쉽게 폭력이나 착취의 대상이 되지만 성매매의 익명적 특성 때문에 모든 사회적 관심의 영역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

결국 성매매의 '익명적 공간'으로서의 특징은 '존재하는' 성매매를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고 여성을 사회적 관계로부터 차단, 고립시켜 여성들에 대한 손님과 포주의 통제, 착취를 더욱 쉽게 하는 전제가 되고 있다. 사회적 관계로부터 분리된 익명적 공간에서 '익명'으로 존재하는 매춘 여성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되고 과거와 정체성으로부터 단절된 여성들은 시민권을 갖지 못한 무력한 존재가 되어 남성과 업주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성매매 반대의 정치학 >>>

우리 사회에서 매춘 여성은 돈을 주고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성적 존재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매춘 여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전체 '여성'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여성이 성적 존재로 취급되는 것이 어떠한 의미와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여성이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 취급되는 것은 다음의 몇 가지 맥락에서 읽혀야 한다. 먼저 우리 사회에서 남성의 성과 여성의 성에 대한 평가는 서로 다르다. 일단 남성은 성욕의 '대상'이나 성적 '존재'로 규정되지 않는다. 남성의 정체성은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 구성되지 신체적 기능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남성들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대상화된 육체로 인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력이나 성적 욕망은 오히려 당연시되거나 장려된다. 이와 더불어 남성은 지배적인 역할에 적합하다고 인정된다.

반면에 여성은 하고 있는 일이나 업적에 따라 평가되기 앞서 신체적 기능에 따라 '여성'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여성'이란 남성에게 의해 점유되고 취득, 소유될 수 있는 존재이다. 이러한 이중 규범의 사회에서 여성이 성적 대상이 된다는 것은 남성과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남성의 성교는 '따먹는다', '갇는다' 같은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을 쟁취하고 소유하고 침범하는 행위이다. 이렇듯 남성에게 의한 성교가 여성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남성과 성교는 여성 존재에 대한 침해로 읽힐 수 있다.

어느 곳에서도 매춘 여성은 그렇게 취급되고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는 남성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매춘 여성은 무엇을 '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존재한다'는 자체로 비인격적인 존재로 취급된다. 우리 중 누가 또는 어떠한 집단이 우리를 아무 것도 아닌 인간으로 취급하는 것을 상상해 보라. 여러분이 거리에서 성추행을 당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그냥 스쳐간다고 생각해 보라. 매춘 여성들에게 이것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적인 삶의 경험이다.

성매매가 잘못된 것은 여성의 순결,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성과 같은 사회적 관습에 위배되기 때문이 아니다. 성산업에서 매춘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착취되거나 사회적인 낙인이 찍히기 때문만도 아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성매매가 여성이 사회적 종속을 정당화하는 가부장제의 신념들을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예를 들어 레스비언 관계는 매춘 여성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지만 그 자체가 남성에 의한 여성의 종속을 유지시키기 위해 존재하지는 않는다. 현재와 같이 열악한 매춘 여성의 지위는 지켜야 할 순결을 상실한 집단에게 떨어지는 단순한 낙인이 아니다. 그녀의 지위는 화대 지불로 남성의 폭력을 용인하고 여성의 사회적 종속을 정당화하는데 기여하는 가부장제의 신념에 기반을 둔 것이다.

돈을 받기 위해 남성들이 원하는 대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들은 결국 남성에게 종속되며 성적 상품으로 대해지기 때문에 남성보다 열등한 지위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매춘 여성의 시민권을 보장하는 문제와



여성 비하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매춘 여성의 지위는 별개의 토대 위에 놓인 문제라 할 수 있다. 남성의 권력 관계 속에 성매매가 존재하는 한, 매춘 여성의 열악한 지위는 여성이 공공의 성적 대상이 될 때의 필연적인 결과물인 셈이며 매춘 여성에 대한 성희롱, 강간, 살인, 폭력, 인신 구속과 매매는 여성이 성적 대상화라는 연속선상에 존재한다.

남성들은 생물학적 본능을 강조하면서 여성의 몸을 사 왔다. 남성들은 결코 매춘부처럼 자신의 몸을 파는 형식으로 그 욕구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 몸을 파는 것, 그 행위에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문제로 해결될 수 없는 더욱 근본적인 '권력'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그렇다면 남성들이 성매매를 통해 얻는 것은 무엇인가?

남성에게 공공의 성적 대상으로 존재하는 매춘 여성은 '여성'의 주변화된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전제이다. 여성의 정체성을 '성애화 된 육체'로 규정하는 가부장적 권력은 성매매를 통해 여성을 생물학적 존재로 환원시킨다. 이로써 여성을 사회적 권력과 역사로부터 내몰고 주변화함으로써 이를 모든 여성에게 보편화시킨다. 여성이 성적 존재로 규정되는 사회에서 여성은 개별 존재가 아닌, 남성과는 구별된 단일한 열등자 집단으로서 '여성'이 된다. 여성이 남성의 성적 존재로 대상화되는 사회에서 모든 여성은 자유로울 수 없는데, 성매매의 존재는 이러한 가부장적 신념을 확립하고 영속화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 놓여 이는 성매매는 여성에게 대안적 노동이 될 수 있거나 평등하게 재구성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맺는 말 >>>

성매매는 여성의 문제라기보다는 남성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나 여성들의 입장에서 성매매의 문제를 가시화하지 않는 한, 언제나 그래왔듯 '보이지 않는 문제'로 남아 있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성매매 공간에서 매춘 여성들은 어디로도 갈 수 없고 어딘가 가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 여성들을 직접적으로 몰아매는 것은 '빛과 폭력'이며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빛과 폭력이다. 그러나 빛을 탐감할 대안이나 도움을 구할 곳도, 그에 대한 정보도 알지 못한다. 어쩌면 그들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혜택과 대안의 가능성을 접할 기회를 한 번도 가져 보지 못한 여성일 수 있다.

한 현장 활동가는 매춘 여성은 사회의 소외 계층이 아니라 단절 계층이라고 지적한다. 철저하게 봉쇄된 그들 내부에 폭력이 난무하고 성매매의 비가시성 자체가 행사하는 폭력은 매춘 여성과 여성들에게 그대로 행사되고 있다. 그 여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동시대 여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은 동시대인으로서 갖는 의무적인 또는 호기심에 불과한 관심 때문이 아니라 매춘 여성의 삶의 모습이 '나'를 '여성'으로 분류하는 인식에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대부분은 매춘 공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폭력 남편이 지배하는 가정이 타인에게 위협이 되지 않듯이 성매매 공간 또한 그러하다. 폭력 남편이 자기 아내에 대한 폭력을 이유 없이 타인에게 행사하지 않듯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폭력을 자행하진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통제와 폭력이 사회아 격리된 '사적 관계'로 행사되는 것처럼 업소 여성들과 포주, 폭력배의 관계는 잘 짜여진 사적인 통제 관계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사창가의 입구에는 어김없이 저택의 수위실처럼 파출소가 세워져 있고 잘 구조화된 조직 폭력배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성매매를 이야기할 때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성매매는 성산업의 자본가와 남성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여기서 이득을 얻는 것은 매춘 여성이 아닌 자본가와 남성이라는 사실이다. 여성들이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어떤 종류의 '일'로서 간주하든지 간에 성매매는 이를 필요로 하는 남성 손님과 업주, 그리고 이를 구조화하는 가부장제의 맥락에서 발생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가 일어나는 맥락을 파악하고 이해하게 될 때 그 것은 곧 힘을 형성한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나 회피가 아니라 문제를 최소화할 신중한 태도와 준비,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갖는 용기이다. 여성의 인권을 좀 먹는 성매매, 그 가부장제의 비겟덩이가 우리의 몸 속에 누적되어 숨통을 막게 될지, 우리 인식의 구석구석을 점검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성매매 반대는 인권을 향한 첫걸음이며 그 자체가 힘이다. 이는 여성이나 남성 모두가 각자 선 자리에서 풀어 가야 할 과제이다. ♣

원미애 (한국여성연구원 연구원)

이 글은 '우리는 왜 성매매를 반대해야 하는가' (원미애, 한국여성연구원 연구원)의 글을 분량상 임의로 편집한 것이다. 원문은 총여성학회 홈페이지(<http://www.yslem.or.kr>) 자료실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Asia Sex Slaves

// 방콕 2002.

지난 여름 어느 날 밤, 방콕의 실롬 거리로 나섰다. 방콕의 유명한 사무실 밀집 지역임과 동시에 밤에는 근사한 야시장이 펼쳐지는 곳. 길거리를 유유히 지나가는 코끼리를 보면서 웃기만 하였다. 그러다가 어떤 한 태국인이 말을 걸어온다. "혼자 여행하고 있는 중이야?". 나는 약간경계를 하지만,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걸어 오는 그 사람에게 호의적으로 대답을 하였다.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가는 곳에 같이 가자고 한다.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으로, 그곳에 있는 친구들은 다들 대학생이며, 영어도 매우 잘해 즐겁게 놀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재미있는 친구를 만났다고 즐거워하며, Youth Club으로 춤추러 가는 줄로 알고 따라갔다. 얼마 걸다가 한 가게에 문을 딱 열었는데, 갑자기 하얀색 삼각 팬티를 입고 있는 30명 정도의 남자아이들이 갑자기 조명과 음악을 틀고 무대위로 올라가 자기 몸을 더듬으며 이상한 시선을 나에게 보낸다. 조금 놀래서 뒤로 돌아서자, 아까 그 사람은 '1층에서는 나체쇼와 마초쇼를 볼 수 있고, 2층에서는 마사지를 받을 수 있으며, 3층에서는 원하는 아이와 섹스하거나 원하는 아이들끼리 섹스하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한다. '미안한데요, 나는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사람은 '그럼 여자들을 보여줄까?'라고 묻더니 주머니에서 몇 십장 되는 나체 사진을 짹 펼쳐 보여준다. 또 한마디 덧붙인다. '애네들 다 어린 애들이고 원하는 걸 다들어 줄 수 있고' 간신히 빼어내고 돌아섰다.

숙소로 돌아와 가이드북을 보니, 그곳은 오피스 타운이기도 하지만 큰 길 옆으로 난 작은 골목들은 모두 환락업소라고 한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큰 성매매 지역으로 방콕에 있는 매춘 여성만해도 100만명이 넘는다고 하며, 최근에는 남성 매춘부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방콕 시내 인구 10명당 1명이 이런 매춘 관련 종사자라

고 하니, 아시아의 섹스 관광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다.

// 잘 살면 돼?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에서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에서 성매매는 가장 효율적인 외화 벌이의 수단이라고 정당화 시켜왔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1960-70년대 기지촌 여성들에게 '국가 경제를 위해 외화 벌이를 하는 자랑스러운 민족의 딸'이라고 교육을 시켰던 적이 있었다. 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관광 수입을 올린다는 보도의 이면에는 방콕에서만 100만명이 넘는 여성들이 매일 밤, 열악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 자신의 성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담겨져 있다. 캄보디아에는 1년에 5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오는데, 1억 2천만 달러의 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①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시아의 국가 경제가 나아지면 성매매는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를 보면, 경제적으로 가장 발전한 아시아 국가라 하더라도 성매매는 오히려 더 심하다. 단지 여성이 일본 여성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의 여성으로 바뀌었다는 것뿐이다. 국가는 외화 벌이의 수단으로 정당화를 시키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 곧 없어질 것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성매매는 경제적으로 정당화되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가부장제에 있다.

// 가족, 결코 보금자리가 아닌

아시아 국가들에서 성매매 산업에 있어서, 여성 공급^②의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가족'이다. 우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여성이란 2류 인간이며,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독립할 수 없으며 '가부장'에게 속하는 일종의 '사적 소유물'과 같은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3종지도라고 불리는 것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아시아 사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여성의 인권이나 권리는 전혀 인정되지 않으며, 가족-엄밀히 말해 가부장적 가족은 여성을 성



① 한겨레 21, '영국로 외딴에서 죽고 싶다', 2001년 7월 11일자 367호

② '수요', '공급', '소매', '선업', '수입'과 같은 일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립적이다. 하지만 성매매에 있어서 그것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일 수가 없다. 엄밀히 한 인간에 대해서 인권을 침해하는 현장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사람의 수를 '공급',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을 '수요'라는 매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것인성 포장에서는 안된다. 하지만 적당히 대치할만한 용어는 아직 찾지 못하였다. 부득이하게 '수요' / '공급'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 용어는 원래의 용어가 갖고 있는 의미와는 다른, '목욕을 당하는 자'와 '목욕을 가하는 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매매 현장으로 내몰게 된다. 지참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 국가별 사회별로 다르다. 하나는 신부 가족이 결혼할 신랑 가족에게 주어야 하는 것, 다른 하나는 신랑측에서 신부 가족에게 주는 것이다. 언뜻 보면 두 번째 지참금의 경우 그나마 여성의 인권이 좀더 나은 상황인 것처럼 보이나, 둘 다 아시아 성매매 산업에 있어서의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된다. 첫 번째, 신부 가족이 신랑 가족에게 주어야 하는 지참금의 액수는 가정에서 쉽게 부담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다. 따라서 빈곤 가정은 딸을 결혼 시킬 수 없으며, 생계가 곤란하기 때문에 딸을 사창가에 팔게 된다. 두 번째 지참금의 경우에는 딸이란 '결혼시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이 결혼에 의한 지참금을 받는 것이건, 사창가에 팔아 받을 수 있는 돈이건 상관없이 딸은 곧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재산이 된다. 이런 사회에서는 딸이 출생되면 '돈 벌었구나'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③ 이처럼 가부장적 가족에 있어서 딸의 위치는 부수적이며, 어떤 사회에서는 '돈을 지불해야 할 짐'이며 어떤 사회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재산'으로 여겨지며, 이것은 어느 것에 상관없이 가족에게 있어서 딸을 성매매 현장으로 보내는데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용하고 있다.



// 성매매의 세계화? - 사라진 국경.

일본은 아시아 국가 내에서 가장 '여성'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되어버렸다. 일본 경제가 발전하고 일본 여성이 그 산업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내국인 여성이 아닌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 여성들을 수입하여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수요-공급의 법칙'은 자국내 여성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 경제적 빈곤 국가의 여성들로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방콕의 팟퐁 거리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은' 미얀마와 라오스, 캄보디아와 중국의 국경에서 넘어와 팔리는 여성들, 산악지역에서 봄바이까지 팔려오는 여성들. 'Go South'는 이처럼 '여성이 팔려가는 루트'를 한마디로 압축한 말이 되어 버렸다.

단순히 '수입'의 영역 뿐만 아니라 '소비'의 영역도 국가간 경계를 쉽게 넘는다. 이제 상당수의 해외여행 자체가 '섹스'가 되어버렸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동남아시아 관광=섹스관광"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섹스 관광객이 현지 국가에서 적발된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④ 유럽 등 서양 국가들에서는 매춘이

③ Louise Brown, 2000, "Sex Slaves: the trafficking of women in Asia" Virago press, London.
④ 물론 섹스라는 말보다는 (돈을 주고 하는) 성매매, 강간이라는 말이 가장 적당할 것이다.

매우 비싸며, 동양 여성에 대한 서양 남성의 오리엔탈리즘 역시 많은 역할을 하며, 아시아 국가들을 '성매매의 온상으로 만들기 프로젝트'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 남은 이야기들

아직까지 할 이야기들은 많이 남았다. 가부장적 문화와 그로 인한 여성에게 순결을 강요하며, 남성에게는 이중적인 성의 잣대가 주류를 이루는 아시아의 문화. 그리고 그 팔려온 여성들이 그것을 '숙명적인 일로 받아들이기까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강간, 그리고 그 여성들의 노후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의 딸이 겪게 되는 똑 같은 재생산 구조.

태국에서 만난 어떤 서양인은 '아시아에서 섹스는 프리'라고 나에게 이야기를 하였다. 프놈펜에서는 남자들이 모여서 지난 주에 갔었던 사창가 이야기를 하는게 매우 일반적인 일이라고 한다.

가부장제, 식민화된 공간으로서의 아시아, 오리엔탈리즘.

아시아 여성들이 무차별적으로 성폭력의 위협에 처한 현장에서 내가 본 것들이다. ♣

이송규호 사회학과 00

참고 문헌

- Louise Brown, "Sex Slaves: the trafficking of women in Asia" Virago press
Amit Gilboa, "On the rails in Phnompenh into the dark heart of guns, girls, and ganja", Asia books, 캐슬린 베리,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삼인, 한겨레 21, '양코르 외트에서 죽고 싶다', 2001년 7월 11일자 367호, 연합뉴스 '베트남 한국인 섹스관광 오명' 2002년 9월 15일, YTN, '아시아 여성 매춘 조직 적발', 2002년 9월 20일

⑤ 2002년 9월 13일에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한국인 베트남 관광객 25명이 섹스 관광으로 적발되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매춘 여성은 구속할 법적 근거가 있으나, 매춘 남성만 구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여성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음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



3rd street -

나는 모든
성폭력에 반대한다!



1 가해자에게 보내는 편지...

몇 번을 쓰다 지우다... 얼마나 망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지요.
그렇죠...
처음부터 당신은 저를 알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당신에게 저는 너무도 일상적인,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는 스쳐지나가는
사람 중에 한명이겠지요.
당신에게 나의 존재감은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을 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는지...
당신 생각에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잠 못 이루던 밤들이 저게는
아직도 무겁게 남아있기 때문이겠죠...

당신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당신이 아무런 의도 없이 한 행동.
당신이 즐겁자고 했던 농담들
당신이 나에게 보낸 호의적인 제스처들

그렇죠.
당신은 저에게 불쾌감을 줄 의도도
여성을 비하할 의도도
저를 성적으로 생각한 것도 아무 것도 없었겠죠...
당신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과 행동이었는데,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겠죠.

모두들 내가 잘못이라고 말을 하죠.
너가 예민한거다
너가 과도하게 해석한거다
오버하지 말아라
당신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언제나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 좋은 선배이고, 믿음직스런 동기이고,
성실한 후배인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도 의심할 수 없겠죠.
다 제가 잘못된 것이 되는 것이죠.



내가 잘못 들은 것이고
내가 잘못 이해한 것이고
내가 착각한 것으로 만들어버리죠...

당신은 예전과 같이 잘 살고 계시더군요.
어떤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친구들과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당
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언 곳에서 당신의 모습만 보아도 아직까지도 떨리는 심장을 주체할 수 없고
당신의 친구들에게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래서 그냥 피하고 싶은...
당신이 골잘 있는 공간에는 아예 가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저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르더군요.

당신은 가/해/자이고
나는 피/해/자인데...

우리의 모습은 왜 이렇게 다른걸까요?

당신은 아직도 모르고 있겠죠?
죽을 때까지도 알 수 없겠죠?
당신이 어떤 상처를 안겨주었는지...
당신의 행동이 어떤 잘못을 한 것인지...

당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요.

당신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제게 미안하다 라는 한마디 사과라도 할 것이라는
헛된 기대는 버리기로 했어요.
부질없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지금처럼 살지는 않을 생각이에요.
당신보다 당당해야 하는 것은 바로 저니까요.
더 이상 나에게 피해주지 말아요.
지금까지 당신에게 받은 상처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혼자 자책하는 바보가 아니에요.
당신이 계속 그렇게 나온다면
당당히 맞서고 있어야 할 거예요.
저와 나의 자매들은 더 이상 참지 않아요.

홈페이지
<http://bboba.wa.to>
이메일
bboba2002@hotmail.com

나는 모든
것을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존재하는 상이한 권력지반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선후배관계, 직장상사와
부하직원 등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에서 기인하는 권력의 차이는 현실 속에서 성폭력의 발
생을 묵인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조차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억압 기제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유지시키게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위계질서 속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성폭력 사건의 특성이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예가 바로 교수성폭력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압력으로 진로와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교수가 가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명백하게
피해사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함부로 드러내지 못해왔습니다. 어처구니없지만 피해사실의 공개를 통한 배상 및 보상
과, 여지껏 투자해온 학업의 포기라는 두 가지 선택지 안에서 갈등해야만 하는 것이 교수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의 현실이었습
니다. 그리고 설령 전자를 택한다 하더라도, 서울대 신교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뻔뻔하기 그지없는 가해자와 남성중
심적인 법원, 그리고 가해 교수를 싸고도는 학교 측의 2차, 3차 가해로 점철된, 매우 지난한 고통의 과정이며, 고통스런 오랜
싸움에도 불구하고 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전제해야만 하는 힘든 과정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일상에서 비밀비재하게 발생하지만 제대로 된 피해자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교수성폭력 사
건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월 "교수성폭력뿌리뽑기연대회
의(이하 교성뿌연)"가 결성되었습니다. 고려대여성위원회, 관악여성모임연대, 동국대총여학생회, 서강대여성위원회, 연세대총
여학생회, 한국여성민우회, 서울산업대가 참여하고 있는 교성뿌연은 현재 사건이 진행 중에 있는 동국대 K교수사건과 서강대
김교수사건, 그리고 산업대 K교수사건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해결 과
정을 정리한 백서 발간과 '학내에서의 성폭력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될 길잡이 매뉴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 지난 3월에는
모임의 시작을 알리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고, 지난 8월 20일에는 여태까지의 활동상황을 종합한 첫 번째 토론회 "그들의
얼굴에 파이를 던져라"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올 12월에는 이제까지의 활동을 토대로 정리한 '학내 성폭력 사건 처리를 위
한 길잡이 매뉴얼'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성폭력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동국대 사건, 박사3학기의 피해자가 결국엔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도 여전히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는 서강대 사건, 그리고 성폭력 교수의 수업을 거부한 학생들에게 가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적, 무기정학, 유기정학의 중징계를 내린 산업대 사건이 현재 교성뿌연이 함께하고 있는 사건들
입니다. 이들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 함께 힘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성뿌연의 앞으로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
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어처구니없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학 내의 현실이겠죠. 하다못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강의실
에서는 성폭력적 발언을 거리낌 없이 던지는 가해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현실을 바꾸는 힘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제5회 가을 여성제 femi street를 통해서도 이제까지 교성뿌연의 활동을 통해 정리해 본 가해교수 유형정리, '퀴즈 탐
험 교수 성폭력의 세계'를 여러분 앞에 선보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2
뿌리부터 싹둑! -
“교수성폭력뿌리뽑기연대회의”를
소개합니다.

2002 연세의 반성폭력 운동 그리고 새터 내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3 사회대 자치내규 제정을 제안하며



이제 '내규' 라는 말은 많은 연세인들이 '새터 내규'를 통해서 익숙하게 접해왔을 것이다.

새터 내규는 신입생들을 맞이하는 새로 배움터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다. 실제로 새터 내규를 제정하고 이행하면서 새터 내 성폭력이 많이 줄었다고 한다. 그럼 새터 내규는 새터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으니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는데, '사회대 자치내규'는 왜 필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았다. "성폭력은 범죄이다. 범죄는 법으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반성폭력 학칙에 새터 내규까지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언뜻, "그렇기도 하네." 수긍이 가기도 하는 말이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것은 성폭력은 여타의 범죄 또는 범법 행위들과 다른 특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성폭력은 단순히 강간이나 추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이란 동의 없이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라 언어적 성폭력과 환경적인 성폭력도 포함된다. 이와 같은 성폭력의 정의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성폭력의 경계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상황적 맥락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많은 경우 성폭력은 가해자 본인에게 사회적으로 곁들

여진 고정관념이나 인식에 의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학칙보다 더 긴밀하고 친숙하게 학우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내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에 더불어 사회대만의 자치내규가 필요한 이유는 타 단대나 타 대학과는 다른 연세대학교 사회과학 대학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타인이 만들어 주는 규약에 종속되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 충분히 이해의 과정을 거치고 협의해 만든 규약을 지켜나가는 것은 더욱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사실, 내규는 법처럼 강제성을 지니거나 물리적인 처벌을 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규는 법보다 더 긴밀하게 우리의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징계는 학칙이나 법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사회대라는 특수한 공간 안에서의 크고 작은 성폭력의 예를 보여주고 보다 나은 상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회대 자치내규의 형태가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오랫동안 익숙하게 생각했던 고정관념에서 나오는 일상적인 성폭력을 저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도 사회대 자치내규는 꼭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일상 곳곳에 파고들어 있는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큰 줄기라 할 수 있는 반성 폭력 학칙을 기반으로 사회대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까지 염두에 두는 자치내규가 요구되는 것이다. 흔히들 성폭력은 내 주변에서는 본적도 없고 앞으로 일어지 않을 것이라 막연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아직 성폭력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일수도 있고, 또 그렇게 방치함으로써 성폭력을 더욱 자주 발생하게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위에 쓴 성폭력의 개념을 다시 한 번 읽어보라. 그리고 대학 입학 후 자신이 겪었던 술자리, 오프, 각종 모임의 자리를 떠올려 보라. 유쾌하지 못한 성적 농담, 외모에 대한 평가 등의 성폭력적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런 경험들을 "그다지 유쾌하진 않지만 흔히 있는 일"로 넘겨버리지 말고 우리 스스로 개선해야 한다. 어느 성(性)도 표적이 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자유롭게 공존하기 위해서 자치내규를 제정하려는 노력, 이를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

연세대는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개강과 동시에 지난 2월 새터에서 있었던 성폭력 사건 하나가 공개되었다. 성폭력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 내 주변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착각을 깨버리기라도 하듯이 올 한 해 참 많은 수의 사건이 공개되었다. 실제로 2002년 9월 현재까지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엄청난 수의 성폭력 사건이 단대 학생회나 총여학생회로 신고되거나 제보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성폭력은 발생하고 또 신고되고 있다. 올해 갑자기 성폭력 가해자들이 무더기로 늘어나기라도 한 것일까?

학칙이 제정되었고 새터 내규가 만들어져서 시행 3년차를 맞고 있다. 새터 내규와 학칙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와 담론을 만들어 온지 이제 3년째, 결과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성폭력에 보다 민감해지고 그것을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유난히 많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물밑에서 묻혀지고 감추어져왔던 것들이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이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만한 일들도 지적되고 신고되고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되고 있다. 연세대라는 공간 내에서, 우리 과 우리 동아리에서 비밀비밀하게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은 결코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특정 단체에 국한된 일이 아닌 것이다. 새터와 대동제, 방중 현장활동 그리고 일상으로, 성폭력은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성폭력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강하고 거친 느낌과 '성폭력 가해자'라고 규정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여전히지만 성폭력은 '특별하고 커다란' 어떤 '사건'이 아니라 너무나 일상적인 폭력이며 성별에 따른 권력 관계가 드러나는 한 형태이다.

2002 연세의 반성폭력 운동

지난 한 학기 동안 연성뿌연이라는 이름을 학내 곳곳에서 자주 볼 수 있었다. 2002년 새터내규 시행을 준비하면서 모였던 새터 반성폭력 내규 실무주체 연석회의가 '연세 성폭력 뿌리 뽑기 연대회의'라는 이름으로 한 해 동안 학내에서 반성폭력 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하였다. 이는 지난 2000년에 같은 이름으로 활동하며

학내에서 반성폭력 운동의 흐름을 주도하고, 새터 내규와 반성폭력 학칙을 제정하는데 큰 역할을 한 '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를 부활시킨 것이다. 이것은 새터 기간 뿐만이 아니라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반성폭력 운동을 벌여나가면서 학내에서 많은 학우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연세대라는 공간에서 수년간 끊임없이 반성폭력 운동이 벌어져왔지만, 이에 대한 관심의 부족은 결과물의 수동적 수용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만들어냈다. 1년의 나머지 기간은 침묵하다가 새터 기간에만 잠깐 떠든다는 어느 학우의 지적이 가볍게 들리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1학기에 연성뿌연 부활과 더불어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대동제를 만들기 활동, 반성폭력 자료집 발간, 현장 활동 내규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제도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삶의 방식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어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학내에서 이 작업이 얼마나 충실히 이루어져 왔는가에 대해서는 부족했던 점들이 분명히 있다. 이제부터라도 새터 내규 제정을 요구했던 문제의식을 단지 내규에 제한하지 않고 바로 내 자신과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의 문제로 다시 한 번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제도화하고 강제적인 규제 수단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다른 방식의 반성폭력 운동들과 자신이 있는 공동체 내에서 성폭력에 반대하는 직접 행동을 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들이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 연성뿌연은 한 학기 동안 그러한 행동들을 만들어내고 각자가 속한 공동체에서 작은 실천이라도 만들어가도록 하고자 하였다. 1학기에는 단대별로 적극적인 반성폭력 운동의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주력하였다면, 2학기는 그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공동체를 바꾸는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움직임이 이어져야 할 시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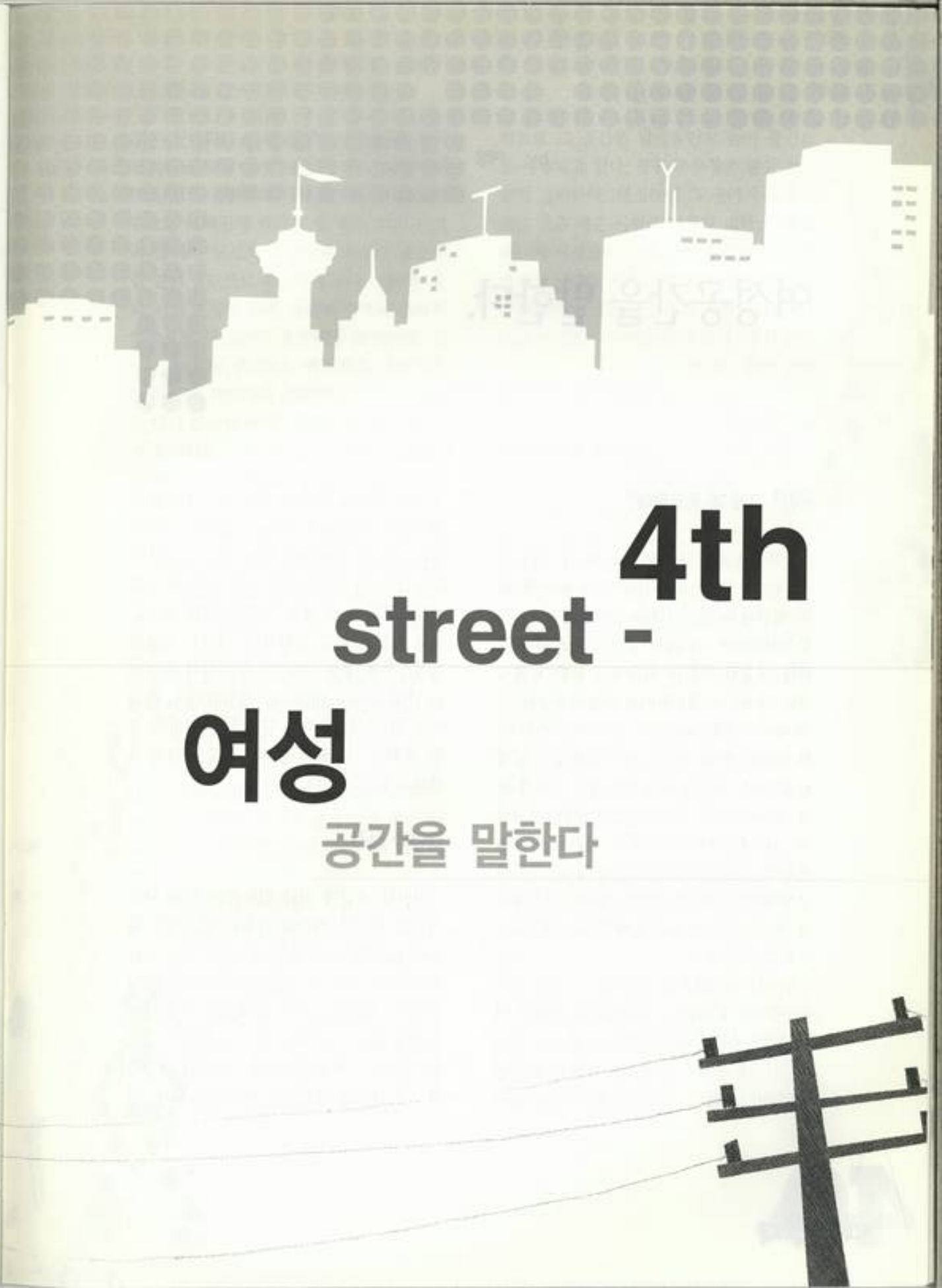
연세대 반성폭력 운동의 또 다른 시작-새터 내규 upgrade가 필요하다

새터 내규를 보완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도 있다. 더불어 올해는 새터를 준비하면서부터 새터 내규가 업그레이드될 필요가 있겠다는 지적이 계속 되었다. 2000년에 만들어진 내규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새터 반성폭력 내규는 새터 문화자체를 바꾸어 내는 것에 그 목적과 의의가 있다. 물론 아직까지 내규에 대한 거부감이나 반감도 많지만 새터 내규가 만들어진 후 새터 분위기나 놀이 문화가 가시적으로 많이 바뀐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에 새터/놀이문화를 바꾸어 낸다는 의미가 2000년과 현재가 같을 수 없다. 또한 2000년에 시기적 급박함으로 인해 다 담아내지 못한 내용이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는 작업도 이루어져야 한다. 반성폭력 운동이 올 한해로 끝나는 것도 완성되는 것도 아니기에, 새터 내규 업그레이드는 현재 연세대의 지형을 점검하는 자리이자 이 후 학내 반성폭력 운동을 계획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잊지말아야 할 한 가지!-단대별 자치 규약 제정 운동

1학기 동안 계속 이야기되어 온 단대별 내규 제정 역시 새터 내규 업그레이드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000년의 새터 내규가 현재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유이다. 사정이 많이 다른 단대들이 서로 공유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전체 새터 내규가 포괄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 동시에 총여가 '주는' 강제적인 규약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반발심을 많이 표출하고 있다) 단대에서 합의하여 만든 약속이라면 구성원들이 내규를 지키는 데도 훨씬 적극적일 것이며, 사례나 규약의 조항들도 단대에 맞는 현실적인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단대에 가장 필요한 규약은 무엇인가, 나의 활동 공간이 가지는 문제점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내 스스로 나의 주변을 바꾸어내는 진지한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4

2002 연세의 반성폭력 운동 그리고 새터 내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여성공간을 말한다.

공간? 그게 왜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생물학적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받아들이진다. 사회성원으로서 남성과 여성은 그들 문화에 의해 규정된 역할을 학습하고 문화가 제시하는 가치관과 행위양식을 수용하고 따름으로 해서 문화화의 과정을 겪는다. 이러한 문화 과정을 통해 개인은 문화적 환경의 통제를 받는다. 개인의 삶을 한정하는 문화적 환경 중에는 사람, 장소, 시간, 가치관, 사회관계, 심리적 과정 등이 상호 연관된 하나의 문화적 집합체로서의 공간이 있다. 문화를 구성원들이 공유한 관념과 의미의 구성체로 볼 때, 공간은 한 사회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문화적 부호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도구와 접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문화적으로 한정된 성에 의해 구분되고 연관되듯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간 역시 남성과 여성에 따라 분리되어 있다. 인간은 주어진 공간과의 적응과

정에서 공간적 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적 규칙을 학습하게 되며, 이 문화적 규칙에 따라 그들이 선택해야 하는 경험의 내용이 달라진다. 즉 거리공간의 구조, 역할에 따른 공간영역의 분리 등을 통해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경험을 형성하며, 이러한 경험의 형성과정을 통해 개인은 그 사회가 기대하는 남성 그리고 여성으로 재생산된다. 매일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생활, 심리적 경험, 문화적 언어들은 공간의 범주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것이다.

젠더와 공간

어떠한 공간에 지금 있는가는 지금 나는 어떠한 위치와 역할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해준다. 매일 집 안에서 가사일을 하는 사람과, 국회나 방송국, 대기업에서 하루종일 일을 하는 사람이 느끼는 정체성을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간은 여성/남성의 이분화 된 구분처럼 여성의 공간과 남성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것은 근대화와 함께 진행되어온 공과 사의 분리와도 맞닿아 있는 문제이다. 공적영역이 남성의 공간으로 사적 영역이 여성의 공간으로 여겨짐에 따라서 집 밖의 모든 사회적 영역이 남성의 공간으로 여성의 공간은 집 안의 공간으로 축소되게 된다. 이러한 공과 사의 분리와 함께 생산적 영역과 소비적 영역으로 구분되어 생산적인 공간(주로 일터)은 남성의 공간으로 여겨지고, 소비적인 영역(시장, 백화점과 같은)은 여성의 영역으로 다시 분리가 된다. 이렇게 공간은 단순히 사소하고, 소모적이고, 중요하지 않고, 불필요한 공간으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의대 건물에는 본과 4학년의 특수한 상황들 때문에 본과 4학년 휴게실이 따로 있다고 한다. 하지만 본과 4학년 휴게실은 곧 본과 4학년 남학생들만의 휴게실이 되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본과 4학년 여학생들은 여학생 휴게실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로 인하여 본과 4학년이 아닌 여학생들은 쉴 곳을 잃은 셈이다. '여성 전용'이라는 말에 대한 남성들의 거부감과 역차별의 논리는 사실 한꺼풀 벗겨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여성 전용이라고 써붙여 놓지 않은 곳은 암묵적으로 모두 남성들만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대학이라는 공간 안에서 우리는 일차적으로 학생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이라는 위치는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동등한 위치에서 교육을 받을 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은 무성(無性)적 공간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런 학교 역시 젠더에 의해 구분되어 있다. 대강당 앞은 그 누구도 '남성 전용 공간'이라고 써놓지 않았지만 암묵

적으로 그 공간은 남성들만의 놀이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물론 운동장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러하다. 여성들이 그 곳에서 운동을 하는 것을 막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도 그저 나와서 같이 놀면 될 거라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미 그 공간들은 남성들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그 곳에 여성들이 끼어들 틈은 없다. 단지 가슴 졸이면서 그 곳을 지나갈 때 재수 없이 공에 맞지 않기만을 바라는 수밖에...

여성공간을 말한다.

여성들이 기존의 공간 구성에 있어서 자신의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성들만의 공간이 필요한 것이다. 여성들만의 공간을 말한다. 그것이 배타적이고, 편협하게 보여질 수도 있다. 너무나 쉽게 세상은 여성들끼리 사는 게 아니라고, 어찌피 남성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인데 왜 여성들끼리만 지내려 하냐고 말을 한다. 하지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여성들의 공간은 찾아보기 힘들다. 일상적인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은 없으며, 술한 폭력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전용 공간이 필요한 것이다. 여성전용 메일링 리스트 systems의 설립자의 말을 통해서 왜 여성전용 공간이 필요하며, 그것이 왜 역차별이 되지 않는지를 살펴보자.

systems는 사적인 남성 전용 클럽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컴퓨터 과학에서 여성이 극소수이기 때문이다. systems는 공동체 외부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지키거나 비밀로 하는데 관심이 없다. 사실 유용한 메시지들은

일반적으로 기고자들이 체크한 후 공개된다. 사실 모든 커뮤니케이션에서 힘있는 소수가 힘있는 다수로부터 정보를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적다. 나는 이성적이고 평등한 세계, 또는 컴퓨터 과학에 여성이 더 많은 세계에서도 systers와 같은 포럼이 필요한지에 관한 것은 다루지 않는다. 우리가 그곳에 있게 될 때 그 것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은 서로를 발견할 공간이 필요하다. 컴퓨터 과학에서 지리적으로 흩어져 있고, 종종 개인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소수로서 여성은 어떤 목적으로든 다른 여성과 상호작용할 기회가 드물다. 여성 (그리고 남성)은 남성과 상호작용할 기회가 많다. systers가 나타나기 전까지 전세계적 개념의 "컴퓨터 과학에서 여성 공동체"는 없었다.

즉 여성 전용 공간이란 기존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정보와 권력의 공유를 막기 위해서 만들었던 백인전용이나, 남성전용, 기독교인 전용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여성전용 공간의 중대가 실질적으로 남성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학생 휴게실!

● 학내 여휴 상황

학내에 여성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현재 여학생 휴게실 밖에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나마 있는 여학생 휴게실(이하 여휴)는 단단히 그 곳에 정착하여 뿌리를 내리고 있다기 보다는 늘 표류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관리가 거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언제나 그 공간의 존재 이유가 의심받

고 있기 때문이다.

학내 여휴는 논지당을 포함해서 총 10 곳이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 거의 관리에 신경을 써오지 않았다. 논지당이 그나마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지만 많은 여학생들을 수용하기엔 부족하며 4시 반에 문을 닫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여성의 공간은 시간에 의해서 많은 제약을 받는다. 여성의 공간은 해지기 전까지이며, 해가 진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중도 여휴는 가장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있다. 도서관의 입장은 '도서관은 책을 빌리고 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휴게실은 필요가 없다'이다. 도서관이 고시생들의 개인 책상화 되었던 문제들을 볼 때 일면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휴게실을 없애고 사물함을 들여놓는 것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알 수 있다(책만 빌리고 읽는다면 사물함은 필요가 없다. 도서관 사물함은 오랫동안 고시생을 비롯한 취업준비생이 가장 필요로 한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차치하더라도 현재 도서관에 많은 여학생들이 사용하고 있고, 그들이 여휴를 필요로 한다는 것,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이 밖에 단대에 속해있는 여휴들은 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그 공간의 자치공간일 경우 과방이나 동아리방으로의 전환을 많은 이들이 노리고 있으며, 단대 사무실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경우 사무실의 무관심과 학생회의 무관심 속에 놓여 있기 쉽다. 기본적인 관리나 비품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없

고, 학생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고 그 공간을 없애자는 의견이 너무나 쉽게 나오고 있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

● 여휴가 왜 필요한 공간인가

여휴의 존재 이유는 '역차별'이라는 너무 쉬운 명제로부터 쉽게 의심받는다. 이는 현재 남녀의 상황이 그렇게 평등한 위치는 아니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며, 여자들이 좀 더 노력하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유주의의 껍데기만 뒤집어 쓴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이다. 남자들은 쉴 공간이 필요하고, 휴게실이 필요한데 왜 여학생 휴게실만 있느냐라는 물음이다. 하지만 이 물음이 우스워지는 이유는 남들도 휴게실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휴게실을 요구해야 하는 문제이지(여휴도 그냥 떨어진 것은 아니다) 현재 있는 여학생 휴게실까지 없앨 필요는 없는 문제이다.

현재 학내의 시급한 자치공간 문제 역시 여휴를 위협하게 하고 있다. 여휴라는 공간 보다는 자치공간이 더 필요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치공간, 물론 필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자치공간은 그 공간을 필요로 하는 구성원들이 결속력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투쟁해나갈 원동력이 있다. 하지만 여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현재 흩어져 있고, 단지 목소리가 크게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공간의 절실함을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또한 현재의 많은 자치공간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왜 여학생들이 자치공간 안에서는 편히 쉴 수 없는

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겠다.

● 여학생 휴게실의 의미

비자이더 울프가 말한 '자기만의 방'이 단순히 편하게 발뺌할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을 말한 것이 아닌 것처럼 여학생 휴게실이 단지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만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폭력적인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휴가 필요하기도 한 것이지만 이러한 의미를 넘어서서 여휴는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신의 공간이라고 느끼는 곳은 또 그만큼의 여유와 새로운 힘을 준다. 자신의 공간이라고 느끼는 곳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은 부유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공간은 물리적 공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었을 때 불편한 것처럼 여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간들 속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신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공간 안에서 스스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새로운 담론들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



윗 글은 38호 문우지(10월 발간)에 수록된, 여량의 글에서 발췌·수록하였습니다.

All that (s)he wants-by AlterY

대안적인 연고제를 고민하는
연고제와 관련한 스티커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사람들의 모임 AlterY(알타리)에서는 3주에 걸쳐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① 'AlterY 생각'입니다.

나, 연고제 때 고대생들이
붙은 Be the Reds 티를
입고 물려와 걱정된다

이번 연고제 때 고대생들이 붙은 Be the Reds 티를
입고 물려와 걱정된다

: 왜 걱정... 월드컵 때 스코틀랜드 티를 입은 게
오히려 훌륭한 삶의 태도 아닌가? —:

술집에서 공짜로 술을 한잔 먹을 수
있어서 좋다.

술집에서 공짜로 술을 한잔 먹을 수 있어서 좋다

: 정말로 술집에서 술을 한잔 좋아하는

당신 닮았어? 피맛리는 사람 어렸어라고.

심혼 자력생각들은 기본이요, 도사물 피해다녀야하는
애꿎은 알바생생각도 좀 하세요.

연고제 때 휴강안하는 교수님들을

보면 욕이 나온다

: 정말 없음...: 술집에서 좋다!

연고제 휴강하는 교수님들 보면
욕이 나온다

장학에서 시끄럽게 구는 모습은
대안생들에게 매우 좋다

한술 앞에서 시끄럽게 구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확대사건있어요)

: 지하철도를 이용하시는 승객 여러분, 잠시 눈과 귀와 코를
막아주세요... 열매인 여러분, 여지껏 잘못했거 알고?

음원기만 들어도 학교 호기가 살아난다

음원기만 들어도 학교 호기가 살아난다

: 부동의 1위. 혹자는 스티커 붙일 곳이 없어서 내가 붙
일 스티커 위에 덧붙였다 했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실나고 정치적으로 물대문 새로
문 음원곡을 하류 켈리 만들어야하지 않을까.
문동경기 음원으로 정한 연고제... 언제쯤 변경할까?

연고제 운동경기 중심의 지금보다는
내용이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연고제가 운동경기 중심의 지금보다는

내용이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 배변 지대한 말씀! 해독제, 음원기 중심의
연고제 탈피!

동아리나 과 활동을 많이 해온
사람들은 줄기가 많이 있다

동아리나 과 활동을 많이 해온
사람들은 줄기가 많이 있다

: — 정말 심각하죠. 즐기고 싶어도 못

즐기는 연고제. 도대체 나는 어디로? 장단

이 장단을 만들어 즐기는 장단주의 축제는
근략하죠!

연고제는 휴강해서 수업 안들어도 되는
것이 제일 좋다

연고제는 휴강해서 수업 안들어도 되는

것이 제일 좋다

: ...:



여성 자치단체 소개

비온드

beyond는 97년 3월 세계 여성의 날을 준비하면서 모인 사람들을 시작으로 '여성에 대한 불평등하고 억압적인 현실을 넘어서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대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community :
www.unninet.co.kr 에서 비온드 커뮤니티

두입술

두입술은 학내 여성자치언론입니다. 우리는 단지 유행처럼 단편적으로 다루어지는 여성문제가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으로서의 '여성주의'를 고민하고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일상의 작은 불편들, 그리고 때로는 분노하게 되는 그 곳에서 우리의 두 입술을 열려고 합니다. 침묵에서 소통으로, 그리고 자기 것이 아닌 언어에 대한 반역으로 우리의 두입술은 계속 나눌댈 것입니다.

community :
www.unninet.co.kr 에서 두입술 커뮤니티

문대 여성주의자모임 모반

모반은 문과대학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자치단체입니다. 모든 가부장제에 반대하며 현재의 남성중심의 사회에 謀反을 꾀하고자 하는 여성주의자들이 모인 곳이지요. 여성의 수가 과반수 이상이지만 남성위주의 문화는 여전히 존재하는 문과대학의 특수한 현실에서 피상적이고 이론적인 차원에서 여성의 존재가 인식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community :
www.unninet.co.kr 에서 모반 커뮤니티

페미니리

여성학자치도서관 페미니리는 98년도에 생긴 총여학생회 산하의 여성학 생활도서관에서 2000년에 학생 자치 도서관으로 거듭나 학내/학외 여성운동의 결과물들을 모으고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페미니리는 300여권의 비교적 최신의 여성학 관련 단행본과 여성주의 정기간행물을 가지고 있으며, 각종 여성문제와 관련된 문서 파일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homepage :
http://suny.yonsei.ac.kr/~feminary

여성주의 밴드 AZAC

AZAC은 2000년도에 결성된 새내기 밴드입니다. "여자애들한테는 키보드나 안겨주면 그만이지."라는 말들이 아직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는 현실에서, AZAC은 여성들만으로도 음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멋지게 보여주며 여성들의 능력에 대한 편견들을 아작 내버리고자 합니다. 여성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가 담긴 여성 뮤지션들의 곡들을 발굴해서 즐겁게 불러제끼는 것, 그것이 바로 AZAC의 공연입니다.

community :
www.unninet.co.kr 에서 아작 커뮤니티
E-mail : siva99@freechal.com



What? Who?

FEMINARY?



학내 여성학 자치도서관을 고민하는 자치모임인 페미니리 feminary는 어느 한 개인이나 시기에 그치고 사라져버리는 여성운동의 다양한 경험들이 여성운동을 고민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학·여성운동에 대한 자료와 경험을 모으고 분류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미니리 자체에서 여성학 세미나를 위한 커리를 만들거나 여성학 도서에 대한 서평을 쓰는 일도 진행합니다. '개인의 경험이 모이면 역사가 됩니다' 페미니리와 함께 역사를 만들어 보시지 않겠어요?

여성학 도서 대출

여성학을 공부하려는데 어떤 책을 읽어야할지 모를 때, 중도에 책이 없을 때, 페미니리는 300여종의 여성학 도서나 잡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빌려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학생회관 3층 총 여학생회실 한쪽방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세미나

여성학이나 여성운동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입문부터 심화까지... 혼자서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미나를 기획하고



여러 사람들과 얘길 나눌 수 있습니다. 지난 여름방학 때는 <동맹속의 섹스>, <남과 여, 은폐된 성적 계약>,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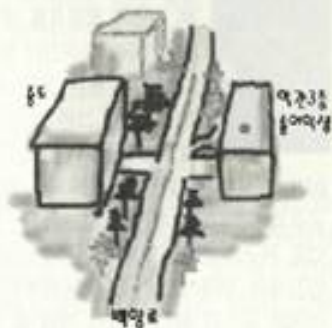
잡지 '페미니리'

'꼬끼오~'로 시작하는 페미니리 잡지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치 도서관에 대한 고민을 연장해서 페미니리에서는 한 학기에 한번정도 잡지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첫호에서는 페미니스트는 설친다, 진보와 페미니즘, 군가산점, 호주제를 다뤘습니다. 소량 한정본으로 나와서 못보신 분들도 많을텐데, 페미니리로 오시면 그 모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성학 자치도서관 페미니리 FEMINARY

홈페이지 <http://suny.yonsei.ac.kr/~feminary>

메일 feminary@treechal.com



페미니리 Review! 를 함께 만들 사람을 찾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혹은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들, 혼자 보기는 아까운 정치적으로 올바름을 고민하는 만화나 책은 없나요? 우리 주변에서 경험되는 매체들에서 드러나는 혹은 그 이면에 숨겨진 생각들을 유쾌하게 때론 진지하게 고집어보는 '페미니리 리뷰'를 만들 계획입니다. 잡지를 기획하고 만들거나 잡지 준비를 위한 페미니즘 세미나를 함께 진행하실 분들은 페미니리로 찾아주세요.

페미니리 지킴이를 모집합니다.

공강시간에 갈 곳이 없으신분... 유익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분... 여성학에 관심 있는 모두모두를 환영합니다. 마음껏 여성학 책을 읽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여성학이 공부하고 싶은데 무엇을 봐야할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정치적인 동화책, 그리고 소설책
《혹설 공주의 이야기》, 《이갈리아의 딸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혹은 생각도 안 해 본 것들에 물음표를 붙이는 것 '그런 거 래.' 하며 넘어갔던 불편함의 기원에 대해 파헤쳐 보는 것이 여성학 공부의 시작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집어 들 수 있는 책이 《혹설 공주의

이야기》와 《이갈리아의 딸들》이다. 《혹설 공주의 이야기》는 어렸을 때 수없이 읽었을 서구의 전래동화들을 여성주의적인 입장에서 재해석한 새로운 동화책이다. 어여쁜 공주가 왕자가 와서 깨워 줄 때까지 기다리며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왕자들처럼 모험을 찾아 떠나고, 공주의 계모는 공주의 행복과 인생을 지켜주는 든든한 어머니로 등장한다면? 이 정치적인 동화책은 이러한 비틀기를 통해 여성의 인생과 역할에 대해 뒤집어보기를 시도한다. 이러한 낯익은 것의 낯설게 하기는 《이갈리아의 딸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된다. 여남관계에서 권력을 가진 여성과 권력이 없는 남성을 상상하고 쓴 이 소설은 그 상상력과 재치에 웃음이 나오는 순간, 일상에 속속들이 숨어있는 권력관계를 드러내어 파랗게 한다.

여성생명정부에 대한 공상...
《남자가 월경을 한다면》,
《일상의 반란》

여성생명정부에 대한 공상이라는 제목으로 일부가 발췌되어 이전에 한 권으로 출간되었던 이 책이 원제는 '분노의 행동과



일상의 반란'으로 원래 한 권의 책이다.) 최근 완역으로 다시 출간되었다. 저자인 클로리아 스테이넘은 60년대 미국의 여성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때에 여성주의 잡지 미즈를 창간하는 등의 활동으로 끊임없이 미디어에 주목을 받는 여성활동가였다. 이 책의 에세이들은 일상에서 느끼는 여성에 대한 고민들을 재치있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담고 있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여성학의 교과서... 《새 여성학 강의》



'새여성'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는, 한국 여성학회에서 나온 이 책은 말 그대로 여성학의 교과서다. 각 장에서 여성학의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각 장의 마지막에는 생각할 문제와 읽을거리가 있어 확장된 고민과 공부를 도와준다. 선배들과 하는 새내기 세미나에 좋은 책

왜 여성은 더 나은 성도 아니고,
더 열등한 성은 더더욱 아니고,
남성의 반대편에 있는 성 또한 아닌가?...
《남성과 여성이 다르지도 똑같지도 않은 이유》



항상 아무도 제목을 끝까지 정확히 말하지 못하는 이 보라색 책이 불러일으킨 파장은 어마어마했다! 출간된 직후부터 각종 여성학 수업 교재로, 여성학 세미나에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바로 그 책이다. 사회심리학자인 캐롤 태브리스는 항상 객관적인 듯 했던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평가(기준)이 정상남성이었음을 폭로한다. 그리고 그 차이를 생산하고 그로부터 불평등한 의미를 생산하는 권력기제를 분석함으로써 서로 다르지만 불평등하지 않은 남성과 여성의 '따로 또 같이' 존재하기를 꿈꾼다.

여성학이 던지는 딜레마들...
《페미니즘》

최근에 번역되어 나온 이 책은 기존의 여성학 입문서들의 사조에 따른 구분에서 탈피해서 여성학 내부에서 평등을 사고해



내기 위해 벌어졌던 논쟁의 주제들을 중심에 놓았다. 여성은 남성과 똑같아지기 위해 투쟁해야 하는가, 아니면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에서 여성적인 것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쟁할 것인가? 아마 이 책에서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주의가 각자에게는 평등을 위한 세계관을 만들어 나가는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 책을 통해 '불평등'에 대해 사고하기를 시작하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성학 이론에 대한 종합적 접근...
《페미니즘 사상: 종합적 접근》



이 고전적이고 권위적이기까지 한 입문서를 가지고 공부하려는 사람이 항상 겪게 되는 딜레마는 이 책이 혼자 여성학을 공부하기 위해 읽기에는 너무 어려운데, 이 책을 이해할 만큼 공부한 시점에서는 이미 이런 종류의 입문서가 심각하게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매우 오랜 기간동안 로즈마리 톰의 《페미니즘 사상》은 여성학을 공부하려는 사람이 맨 처음 넘고자 하는 높은 산이었다. 서구 여성학의 총체적인 지식체계를 맛보고 심은 열정적인 사람이라면, 혹은 긴 기간동안 진행되는 심도 있는 여성학 세미나에서 도전해 볼 만 하다. 특히 거의 전화번호부 두께의 2000년 개정 중보판에서는 여성학의 고전적인 논의들과 함께 최근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된 페미니즘 조류에 대한 밀도 있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배우고 싶은 여성학주제가 있는데 무슨책이 될지 모르겠다고?

《대중문화 속의 여성》



미디어 속 여성의 재현에 대한 좋은 입문서로는 《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여성》이 있다. 이 책은 페미니즘 문화이론 개괄서로 초기 여성이미지 연구에서부터 정신분석적 분석, '거슬러 읽기', 관객중심 분석 등 다양한 분석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평가하고 있다. 고전적인 논문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덤비기에 만만하지 않아도 《성 미디어 문화》에 번역된 로라 멀비의 두 편의 페미니즘 영화이론 논문이나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번역된 매리 앤 돈과 아네트 쿤 등의 논문 등이 좋을 것이다. 실제 문화현상에 대한 비평에 관심이 있다면 여성문화이론 연구소에서 나오는 《여/성 이론》에서 매호마다 다루는 문화/텍스트 분석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아네트 쿤의 《이미지의 힘》은 '거슬러 읽기'를 통한 비평/해석의 절차를 누드사진첩, 포르노, 복장전도, 선전영화 등을 분석하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포르노에 관련한 분석은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안내가 될 것이다.

《여성과 몸》



김은실의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은 여성의 몸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몸의 재현, 몸 가꾸기, 매매춘, 출산과 낙태)에 대해 인류학적으로 접근한 책이다. 한국의 사례와 인터뷰들을 바탕으로 설명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들에 접근하는데 매우 좋은 책이다. 한서슬의 《다이어트의 성정치》는 살을 빼려고 노력할 수록 불평등해지는 여성의 다이어트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실려있는 수잔 보르도의 '몸과 여성성의 재생산'은 히스테리, 광장 공포증, 가식증이라는 시대적으로 규정된 여성병리가 어떻게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에의 저항과 복속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섹슈얼리티》

섹슈얼리티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보던 책은 《섹슈얼리티: 성의 정치》이다. 제프리 웨스는 이 책에서 섹슈얼리티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구성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으로써 본질론에 근거한 섹슈얼리티의 위계를



파괴하여 민주적 관계 속에서 발현되는 다양한 섹슈얼리티들을 지향하는 섹슈얼리티의 지식-정치학-윤리학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아돈나의 이중적 의미》는 1부에서 여성들에 대한 인터뷰에서 여성의 성이 사회화되는 과정sexualization의 구체적인 양

상을 드러내고 2부에서는 이러한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통제가 작동되는 메커니즘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장필화의 《여성 몸 성》은 한국의 남성중심적 성문화, 매매춘, 직장내 성희롱, 성차별적 성윤리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해 말하고 있다.



〈성매매와 국가주의〉

최근 성매매에 대한 관심 속에서 이와 관련된 책들이 속속들이 출판되고 있다. 올해 나온 책인 《옹감한 여성들, 늑대를 타고 달리는》은 성매매 여성들의 시선으로 그들의 구체적 일상을 서술하고 있다. 현재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막달레나



의 집에서 엮은 것으로 이들 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가슴을 아리게 한다. 캐서린 문의 《동맹 속의 섹스》는 기지촌 여성들의 삶의 변화를 한미간의 군사적, 외교적 관계와의 관련 속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포착해내고 있는 또 하나의 감동적인 책이다. 비슷한 입장을 가진 책인 《섹슈얼리티의 매춘화》는 전자구적 차원에서 그러나 개인들의 삶의 구체성을 잃지 않는 시선의 균형 속에서 성매매를 분석한다. 캐슬린 베리는 국제적 차원의 자본주의, 군사주의가 성매매를 통해 여성의 몸을 대상화하는 구체적인 과정과 그 속에서의 행위주체들을 드러내고 있다.

〈성폭력〉



정희진의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는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가해남성의 심층면접을 통해 피해여성의 입장에서 아내폭력을 바라보고 있다. 특히 저자는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성찰하고 그 속에서 가부장적 가족구조가 아내폭력을 생산하고 있음을 폭로한다. 《페니스 파시즘》은 박남철 시인

의 인터넷에서의 성희롱사건을 바탕으로 성희롱, 성폭력의 담론들 혹은 이때 사용되는 방식들 속의 남성우월적 파시즘을 파헤치고 있다.



〈노동〉

《여성과 일》은 여성노동에 대한 개론서로 여성노동의 역사, 노동시장 이론들, 각 직무별 여성들의 실태, 직장내 성희롱, 가사노동과 노동법 등의 주제를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노동과 페미니즘》은 여성노동에 대한 연구논문



집이다. 1부에서는 감정노동에 대해 고찰하면서 여성노동의 일부분을 배제하는 기존의 노동개념을 해체하고 2부에서는 적극적인 조치affirmative action 등을 통해 평등 개념을 재구성하고 있다. 또한 3부에서는 '숙련'의 의미정의와 노동시장의 구성의 성불평등을 드러내고 4부에서는 기업, 노동조합 그리고 국가정책 등 조직과 제도 내 가부장성을 밝히고 있다.



〈젠더와 과학/기술〉



과학에서 정치적 올바름을 고민한다. 《남성의 과학을 넘어서》는 남성중심적이고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담당한 과학의 개관성과 가치중립성의 가면을 벗겨낸다.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과학?기술?의료의 과거와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과학과 젠더》는 남성성의 사상이 어떻게 과학과 결합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페미니즘과 기술》은 기술에 있어서의 성별화된 특징을 밝히면서 남성의 기술에 의한 여성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5th street -

여성, 영화路



나처럼 차 보라, 이렇게!!
by - 애라

Bend It Like Beckham

베컴처럼 공을 찬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원 제목을 그대로 번역하자면, 베컴처럼 휘게 차라(?) 뜸이 될 이 영화는 사실 베컴이 별로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베컴과 축구를 너무나 좋아하는 열정적인 인도계 소녀 제스 밤라(파민다 나그라 분)가 주인공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이든 마찬가지의 마음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에게 축구를 하지 말라고 한다.



왜?



제스의 집안은 보수적인 인도계 가정으로, 그녀가 마음껏 들판을 뛰어다닌 것도, 신나게 공을 차는 것도, 남자들과 함께 땀 흘리며 움직이는 것도 모두 반대한다. 그녀에게 어울리는 것은 그녀의 참한 언니처럼 곱게 자라 결혼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그녀의 열정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게다가 제스는 재능까지 있었다. 결국 여자 축구단 소속 줄스(키이라 나이틀리 분)는 공원에서 공을 차던 제스의 화려한 플레이를 눈여겨보고, 코치 조(조너던 라이 메이어스 분)에게 소개해 훈련을 받도록 도와준다. 그렇게 원하던 축구 선수가 되었을 뿐 아니라 같은 여자로서 축구를 하는 친구들도 얻게 된 제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 것일까? 제스의 행실(?)을 문제 삼아 언니의 혼담이 깨어질 위기를 맞고, 어렵게 얻은 축구 동료인 줄스와는 연적이 되고 만다. 단지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를 잘 할 뿐인 제스에게, 축구는 쉽게 얻을 수 없는 행복인지도 모르겠다. 축구를 좋아하는 '여자' 이기 때문에.

이 영화의 감독은 영국에서 활동하는 유일무이한 아시아계(인도) 여성 감독 거린더 차다는 매우 단순한 이유로 이 영화의 소재를 정한 듯 하다. 축구를 빼놓고는 살 수 없는 나라 영국에서, 결혼을 중요시하는 인도계의 한 소녀가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해 축구와 소녀는 만난 것이다.

축구는 매우 격렬하고 힘찬 운동 경기이다. 그래서 축구 선수라고 하면 땀 흘리며 경기장을 뛰는 멋진 남성 선수를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많은 여성 축구선수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훈련과 경기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에 관심가지는 사람은 없다. 제스 역시 자신의 꿈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고 있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그녀를 이해해주지 않는다. 아마도 감독은,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고민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의 정체성이 제약이 될 때, 그녀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려고 한 것은 아닐까?

이 영화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소녀들이 겪는 고민들을 코믹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들 역시 제스처럼 고민하면서 살고 있거나, 그녀의 가족들처럼 그녀를 편견 어린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축구이기 때문에 여자는 안되고, 여자이기 때문에 축구는 안된다는 식의 달한 생각에서 이제는 벗어나보자. 남들은 공이 어디로 향할지 몰라 비웃을지라도, 자신만은 정확히 골대에 박힐 것을 알고 있는 베컴의 멋진 커브 킥처럼, 이제 소녀들의 선택이 옳다는 것을 믿을 때가 되었다.

■ 슈팅 라이크 베컴 Bend It Like Beckham / 거린더 차다 / 112min

■ 10/4(금) 위당관 B09 오후 6시



인도식 팝콘 by _ 여량

Chutney Popcorn

제5회 서울 여성 영화제 심야 상영에서 나는 '인도식 팝콘'을 만나게 되었다. 심야영화 상영하는 곳의 분위기가 늘 그러하듯 아기자기 즐거운 분위기였다. 게다가 '여성영화' - 무엇이 여성 영화로 분류될 수 있는 지는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를 보러 어렵게 여기까지 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느낄 수 있는 동질감 비스무레한 것 때문에 더욱 유쾌하게 영화를 볼 수 있었다. 짧지 않은 시간 영화를 보는 내내 같이 웃고(주인공의 두 어머니들을 보면서...), 같이 소리 지르고, 같이 야유 보내던(인도식 팝콘에 나오는 느끼한 형부를 주목하라!) 경험은 결코 이 영화를 본다는 것이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그리 가볍지 않은 주제를 무척이나 유쾌하게 풀어간다는 것이다. 제목이 암시하듯이 이 영화는 인도의 전통적 문화와 경쾌하게 '퐁퐁 튀는' 뉴욕 레즈비언 하위문화, 그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성적 정체성과 가족의 문제는 또한 인종적, 문화적 차이의 문제와 중첩되어 있다. 두 문화간의 충돌과 갈등은 문신 아티스트이자 사진가인 인도 레즈비언 '리나'에 의해 매개된다. 그녀는 끊임없이 신비한 종교 의식으로 일상 속에 인도식 리듬과 의미, 그리고 가치를 부여하곤 하는 어머니와 뉴욕 레즈비언 그룹의 보헤미안적 생활양식 사이를 속도감 있게 오토바이를 타고 움직인다.

'리나'는 '리사'와 비교적 안정적인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레즈비언이다. 레즈비언 그룹에서 그녀가 행하는 인도식 문신새기기는 그룹 내의 문화적 차이를 승인하는 동시에 두 문화를 마주치게 하려는 행위다. 또한 주인공과 그녀들 둘러싼 레즈비언 커뮤니티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은 현실의 공고한 가부장제를 비웃으면서, 무시하면서, 때로는 비하하면서 경쾌하게 흘러간다. '현실'이라고 규정해 놓은 것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인지를 말하며...

그러나 인도의 전통적 가치 체계와 생활 규범을 유지하고 있는 어머니는 딸의 성적 정체성을 승인하려 들지 않는다. 하지만 '인도식'으로 불리우는 전통 역시 발명된 전통으로서 상상된 민족이란 범주의 허구가 드러난다. 가족들이 벌이는 의례는 정확하지 않으며, 별로 의미도 없다. 인도식이라는 음식은 온갖 것들이 다 섞인 퓨전 음식이다.

그런데 정말 문제거리는 리나가 불임인 언니를 위해서 인공수정을 통해 대리모가 되겠다고 맘먹는 순간 발생한다. 레즈비언 문화내의 코드들과 모성, 혹은 부모 되기의 문제. 인도의 전통적인 가족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고 있는 리나의 어머니와 언니는 이를 수용할 수 있을까. 리나의 임신은 이제 서구와 동양, 성적 정체성들을 둘러싼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가치관, 집단들과 힘들이 경합하는 장소가 된다.

■ 인도식 팝콘 Chutney Popcorn / 니샤 가나트라 / 92min
■ 10/4(금) 위당관 B09 오후 8시





유쾌한Girl, 신나는 女子를 만나다!!!!

유쾌한Girl이 만나 본 다섯 번째 신나는
이승남의 꽃과 빵 CEO 이승남

이승남 강남구 신사동 이승남의 꽃과 빵 사장

이승남의 꽃과 빵은
여러분의 후각, 미각, 시각 모두를
만족 시켜 드립니다.

이승남의 꽃과 빵 이승남입니다.

그녀는 그녀 자신을 소개 할 때, 환하게 웃으며 "이승남의 꽃과 빵의 이승남"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녀의 가게, "이승남의 꽃과 빵"을 소개 할 때, 그녀는 더욱 활짝 웃으며 "후각, 시각, 미각이 모두 만족해하는 공간"이라고 이야기한다. 신사동의 어느 골목에 자리잡은 그녀의 가게는 밖에서 보나, 안에서 보나, 지나가는 이의 시선을 독차지하기에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예쁘다. 그것은 가게를 가득 메우고 있는 꽃 때문이기도 할 테지만, 그 보다는, 언제나 활짝 웃으며 가게를 찾는 모든 이를 기꺼이 반기는, 이승남씨의 신나는 모습 때문인



듯 했다. 2000년 2월 14일에 처음 문을 열어 이제 두 살이 조금 넘은 이승남의 꽃과 빵. 그 향기 나는 가게에서 진행된 그녀와의 인터뷰는 꽃처럼, 빵처럼, 향긋하고 달콤했다.

꽃은 예전부터 좋아했어요, 빵이요? 빵은... 정말 우연히, 우연히 좋아하게 됐어요.

숙진회 꽃꽂이 회장직을 맡고 계신다는 그녀의 언니, 이숙진 씨의 영향이었을까, 이승남씨 역시 예전부터 꽃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그녀의 관심은 꽃뿐 아니라 꽃을 이용한 각종 데코레이션에 까지 뻗쳐 있었는데, 그러한 그녀의 관심은 그녀로 하여금 대학에 재학 중이던 시절 이미 꽃꽂이 강사로 활동한 전적까지 가지도록 했었다. 꽃과 꽃 장식에 흠뻑 빠져, 앞으로도 죽 꽃만 만질 것 같았단, 대학 시절, 그러나 그녀는 졸업 이후 또 하나의 매력적인 관심거리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빵굽기' 였다고.

졸업 이후 가족을 따라 미국 위스콘신으로 이사한 그녀는 '살아 있는 문화 체험'을 목적으로 새로 이사 한 동네의 어느 한 가정에서 2박 3일간 함께 생활하기로 했었다. 사건은 여기에서 터지고 말았던 것! 정말로 '우연히' 골랐던 어느 한 가정이 그 동네의 홈 베이킹 대회에 영예로운 1등을 수상한 바로 그 집이었던 것이다. 그 가정에서 함께 생활한 '문제의 3일' 동안 이승남씨는 '빵굽기'의 매력에 그야말로 취할 정도로 젖어 버렸고, 작정하고 배워 볼 마음까지 다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결국 그 집에서 빵 만

들기 기술을 전수 받기로 결정, 1년 동안 오로지 빵만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냈더니, 어느새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올라 있더라.

남은 꽃이 눈에 띄기에, 그것들을 케익 장식하는 데 써도 되겠다 싶어서..

어느 정도 실력을 쌓은 그녀는 배운 기술을 바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빵 굽기를 배우고자 하는 다른 이들을 닥치는 대로 가르치면서, 쉬지 않고 빵 굽기를 공부하고, 동시에 파티며 가족 모임이며, 행사가 잦은 그 나라 문화를 한국에서부터 갈고 닦은 그녀의 꽃 장식 기술 계발의 더없이 좋은 연습의 장으로 삼은 것. 나날이 늘어가는 그녀의 솜씨에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번져 가던 차, 다시 한 번 사건은 터지고 말았다.

어느 행사장에서 꽃 장식을 마치고, 케익을 둘러보던 그녀의 눈에 행사장 한 구석에 놓여진 남들이 보기에는 그럴 듯한,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밋밋하기 짝이 없는 케익이 '딱' 걸린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행사장을 장식하고 난 꽃을 별 뜻 없이 쿠칭호일에 감아 케익을 장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냥' 장식이었다지만, 그게 어디 '그냥' 장식이었겠는가, 타고난 감각과 손놀림, 그리고 갈고 닦아온 기술까지.. 그 장식으로 인하여 밋밋했던 케익이 반짝 반짝 빛을 내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그렇게 케익이 들인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되어 버렸고, 그녀는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직업으로 등장하기 한참 이전에 "케익 장식가"로 데뷔 아닌 데뷔를 하게 되어 버린 것이다. 그 습관적인 손놀림에서 비롯된 "남은 꽃 케익에 꼽기"가 오늘날 대한 민국 최초의 생화 케익 장식 전문 제과점 "이승남의 꽃과 빵"으로 무럭무럭 클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그런 그녀의 빵, 그녀의 꽃 장식이 한국에 소개 된 것은 그녀의 언니 이 숙진 씨의 책, '아름다운 웨딩 부케 '86'을 통해서였다. 책의 부록으로 그녀가 장식한 그녀의 케익 몇 개가 소개되었는데, 그 반향은 상상을 초월했고, 이는 마이 웨딩을 선

두로 각종 여성지 및 웨딩 업계의 앞을 다투는 섭외로 이어졌는데 이를 계기로 그녀는 본격적으로 작업판에 뛰어들게 되었다.

전공은 국문이에요,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망설임 이유가 없었죠.

그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찌 보면 그녀의 전공과는 살짝 거리가 있는 듯도 했다. 하지만 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은 듯도 했는데, 그녀 가게의 예쁜 이름도 어감과 느낌 이미지 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그녀가 직접 지었다는 이야기나, 맛깔스런 단어들로 꾸며진 빵의 이름들을 듣고 있으니, 그녀는 그녀의 필요에 따라 그녀의 전공을 심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사실은 인터뷰가 끝나고 살짝 지켜본 그녀의 제빵 강의가 매우 조리 있는 설명으로 진행되었음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공과 지금의 일이 아주 밀접한 연관 관계에 있지는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 같은 것은 없었는지가 문득 궁금해지기도 했는데, 이러한 기자의 우문에 대한 이승남씨의 현답, "내가 좋아하는 일이 너무 너무 분명한데 망설임 이유가 무엇이 있었어요? 지금 하는 일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돈 많이 되

는 일은 아니에요, 그냥 재밌고 신기하니까 관심들을 좀 보이는 거지, 그렇지만, 내가 신나고 즐거운데,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자력도 생기는데, 그런 생각하니까, 돈이 많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배우고 가르치는 일도, 빵 만드는 일도, 나한테는 너무너무 재미있거든요."

바쁘냐고요? 아니요, 저 하나도 안 바빠요.

그녀의 하루 일과는 아침 5시 반에 시작된다. 그 이른 새벽에 꽃 시장에 나가 신선한 꽃들을 직접 고르고 구매하여 가게까지 운반, 그 일이 끝나면 몸 관리를 위한 한 시간의 아침 운동을 매일 거르지 않고, 운동이 끝난 후, 식사를 하고, 가게로 나와, 꽃을 정리해 두고, 점심이 되면, 제빵을 배우려고 그녀의 가게를 찾는 수강생들을 가르치고, 다시 가게를 돌보다가 저녁 타임 레슨 진행, 늦은





연세대학교 여성주의 자치 모임 '유쾌한Girl'은 고정 인터뷰 코너 유쾌한Girl 신나는女子를 만나다!를 통해 세상을 신나게 살아가는 여자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할 것입니다. 유쾌한 Girl들이 만나는 사람들, 유쾌한Girl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유쾌한Girl들이 유쾌하게 풀어내는 얘기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by_ 유쾌한Girl

10년만 더 젊어도, 하는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고, 또 배우고 싶은 것도 너무나 많은 이승남씨는 해야 할 일에 비해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종종 안타까운 마음이 든단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가 가르치는 학생들로부터 배우고, 책이며, 사진이며, 배우고 학습하는데에 힘을 두지 않는다. 그야말로 끊임없는 자기 계발. "저는 사실 좀 늦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대학 다 졸업한 이후에 제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20대인 친구들의 경우는 좀 다르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면, 걸모습만 적당히 꾸며가지고 다니는 친구들 보기가 참 안타깝죠. 재료가 다 있고, 환경이 아무리 받쳐주면 뭘 해요, 자기 욕심이 없고 취미에 맞지 않으면 결국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일 찾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직업에 대한 고민 따로, 취미에 대한 고민 따로 이렇게 말고요, 지금 좋아하고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나의 삶과 더 긴밀히 연결시킬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더 고민하고, 연구하고, 탐구하면, 길이 왜 안 보이겠어요?" 제빵에 관심이 있어서 우연히 가게에 들렀다가 지금은 제자가 되어 버렸다는 김주연씨는 이승남씨를 두고, "가까이서 볼수록 너무나 담고 싶은, 인생에 중심이 잡힌 정말 멋진 선생님"이라고 전했는데, 지금 20대를 사는 어떤 여성들을 향한 그녀의 확신에 찬 조언은 취재 기자로 하여금 그 말의 의미를 알 것도 같게 했다.

에 신경을 조금 썩 더 쓰면 안 바쁘게 사는 것, 얼마든지 되더라고요." '하루에 한 가지 약속만 충실히 이행하자'가 모토라는 그녀의 24시간 운영 방법은 꽤나 치밀하고, 철저한 계획을 바탕으로 할 때에 비로소 가능할 것 같은 결코 쉽지 않은 부지런함과 크게 다름이 없어 보였는데, 이미 마흔이 넘었다는 그녀의 나이를 도무지 믿지 못하게 하는 그녀의 빠릿빠릿한 움직임과 젊은 얼굴이 그제서야 이해가 될 듯도 했다.

직업을 가져야겠다, 가게를 운영할 꺼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자신의 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이승남씨는 막연히, 반드시 '자신만의 일'을 가져야겠다는 생각만큼은 끊임없이 해 왔는데, 그래서인지, '이름을 내건' 가게까지 가지게 된 지금, 가끔은 부담스러운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어서 드는 생각은 그래서 더욱 대충 대충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선이 나를 향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그녀의 이런 성실함은 그녀의 작은 가게에 신라호텔 제과장을 비롯한 여러 유명인사들이 다녀가게 했다.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길가다 제자들이 인사 할 때, 그리고 어떤 손님들이 제 케익 덕 톡톡히 봤다며 감사하다고 인사 해 올 때요, 정말 너무너무 신나죠" 지금까지만도 키워 낸 제자가 벌써 300명 가까이 된다는 그녀는 길에서 제자를 만날 때 너무나도 뿌듯한 마음이 드는 동시에 더 없는 보람을 느낀다고.



밤이 되면, 가게의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 스케줄을 미리 점검하는 것, 그것이 '약속이 하나도 없는', '가장 바쁘지 않은' 그녀의 하루 일과다.

거기에 종종 찾아드는 기자들과 신문, 방송사, 설 새 없이 밀려드는 케익 주문에 특강을 해 주시라는 부탁까지 받으니, 도무지 안 바쁠 수가 없을 것 같은데도 그녀는 전혀 바쁘지가 않단다. "계획성 있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안 바쁘겠어요, 그러나 안 바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그것도 또 되더라고요, 여유를 가지고 욕심부리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실수를 줄이기 위해 매일 저녁에 다음 날 스케줄 미리 점검해두고, 약속 겹치지 않게 조정하고, 미리 미리 준비하고, 이런 작은 것들



떡볶이 수다는 왜 떡볶이 수다지?

여학생들에게는 고등학교 다닐때(혹은 초,중딩때)
학교 앞 떡볶이 집에서 "아줌마 많이 줘요"하면서
친구들과 떡볶이를 사먹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때 그 즐겁고 유쾌한 분위기를 떠올리며 떡볶이수다를 만든다.

남학생들은 잘 이해 못할지 몰라도, 수다는 우리에게 생의 즐거움이었고,
우정의 마르지 않는 샘이었다. 호호호~~

그 모습을 항상 기억하며.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 기분좋은 충돌! - 제14대 총여학생회 -

cool-energy@hanmail.net / 전화 2123-3645(구내 3645)